

선교회지 NOV 2013 '겨울' 호 통권 16호

# Universal Care

# 이슬람

Islam

"Missionaries"

선교사의 위기 / 정태화 선교사

특집 2013 Mongol Outreach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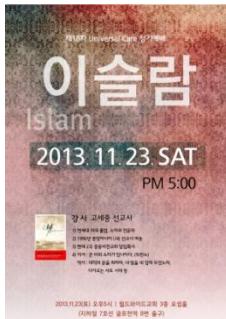
2013.11.2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친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발행일 : 2013.11.23



### 포스터

이슬람과 무슬렘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Designed by 강가영)

# Contents

01 Prologue “선교사의 친구(親舊)” /정진호

## Islam

04 수쿠크 - 신의 계시인가? 포장된 영리행위인가?

/ 장철복 집사

10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선교 /김아굴라선교사

31 역사의 훈련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아랍교회 /민가자사역자

39 아랍지역의 생명의 대로가 될 아랍의 심장  
요르단을 소개합니다.

/김정기 형제

43 한국내 이슬람 선교 전략을 위한 성경적 이해/강다니엘 선교사

48

## A국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

## "Missionaries"

49 선교사의 위기 (선교사 중도 탈락의 문제)/정태화선교사

## 2013 Mongol Outreach

55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김준영

62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입니다./문정배

67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이은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70 러시아 로스토크 나도누 /김우섭 선교사

73 B국 /주바울 선교사

76 성경 번역 선교회(G.B.T)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80 선교사 기도제목&선교회 소식

87 Universal Care 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Prologue

# “선교사의 친구(親舊)”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Universal Care 선교회는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의 친구가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며 더 나아가 후방 선교사로 살아 가기로 작정한 선교회입니다. 친구(親舊)의 사전적인 뜻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입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급할 때 연락할 수 있으며, 친구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아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열일 제쳐 두고 달려가는 그런 사이가 바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에서 잊혀지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 상관 없는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선교사의 아이들이 한글은 뜯었는지, 도대체 아픈 데는 없는지, 물질적인 궁핍함은 없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놀리고 힘든 데는 없는지 우리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급한 사정과 일이 생겼을 때 어렵지만, 연락할 수 있는 사이, 그 친구의 눈으로 미리 헤아려 그들의 필요에 대해 같이 기도하고 울어 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친구의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고 그들의 사역지를 위해 같이 우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길 원합니다. 친구의 마음으로 같이 상의하여 선교지에서 필요한 잔칫상을 준비하여 그들을 돋는 단기 사역자요, 후방선교사로 서길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에 어떠한 후회도 두려움도 이젠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결코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그럼 과연 누구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 속에 “Universal Care 이슬람을 위한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의 멤버요, 동역자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운동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UC Man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선교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보통 북한. 이스라엘, 이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지역이 복음의 마지막 관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선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이삭 목사님을 모시고, 3월에 북한집회를, 7월에 매튜목사님을 통해 이스라엘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해가 가기 전 “이슬람”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집회를 위하여, “이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슬람에 대해 많은 구호를 소리쳐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슬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확장 못지 않게 이슬람내에서 그의 택자들을 성실히 구원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처럼 연약한 선교회를 통해 “이슬람”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키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친구 선교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고파서 일 것입니다. 어쩌면 넘어져 울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답답하여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린 오늘 다시 “선교사의 친구”가 되기로 다짐해 봅니다.

또한 수많은 무슬렘의 친구로 그들을 중보하기로 작정해 봅니다.

우리의 친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험계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즐겼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 5~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18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 이슬람

Islam

2013. 11. 23. SAT

PM 5:00

## 강사 고세중 선교사



- 1) 연세대 의대 졸업, 소아과 전문의
  - 2) 1996년 중앙아시아 14국 선교사 파송
  - 3) 현재 2국 중동비전교회 담임목사
  - 4) 저서 :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두란노)
- 역서 : 대적의 문을 취하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다가오는 사도 시대 등

2013.11.23(토) 오후5시 |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

# 수쿠크 – 신의 계시인가? 포장된 영리행위인가?

## 장철복 집사

동백 은혜샘물교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사  
이슬람금융연구회원  
서울대 경제학과 (BA), 연세대 경영대학원(MBA)  
미국 바이올라대학(Biola Univ.) 실천신학전공(MA)



### 1. 들어가는 말

몇 년 전 소위 “수크크”로 통칭되는 이슬람 금융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작전 단계까지 갔다가 기독교계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여기서 “수크크”라는 것은 투자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중이 참여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무다라바(mudaraba)”라는 형식의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의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의미한다. 당시 정부의 이슬람 금융 제도 도입시도는 정치, 경제분야에서 논란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의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며 우리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더욱이

기독교계의 대응에 대해서 대중의 오해가 발생하면서 이슬람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기독교인 대통령을 앞세운 기독교계의 경제분야 간섭이라는 대중의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고 현재까지도 학계 및 금융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글에서는 그렇다면 이슬람금융은 정말 신의 계시를 금융경제분야에 실천하기 위한 도덕적 필터(Moral filter)의 역할을 하는 상품인지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

즉, 첫째 “정말 알라신은 이자를 받지 말라

고 계시하였나?"

둘째 "이슬람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이슬람금융이 최근 주목 받는 이유는?"

넷째 "이슬람금융 도입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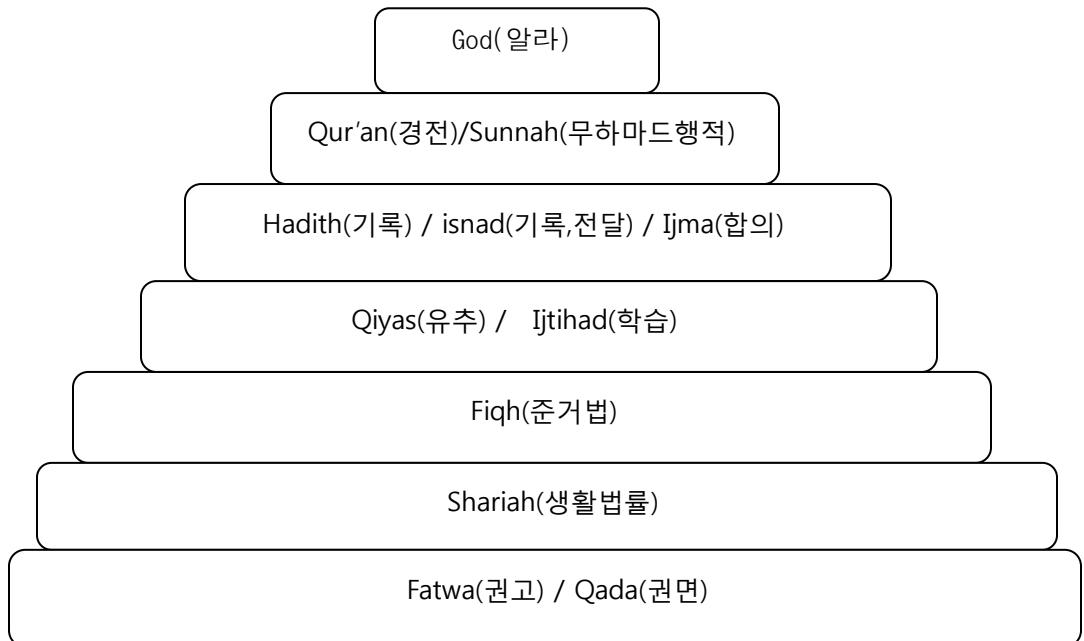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슬람금융의 본질과 한계 및 기독교인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본문

### 가. 알라신의 계시인가?

이슬람금융의 근거는 **샤리아 율법(Shari'a law)**인데 샤리아는 "신이 계시한 종교율법"임과 동시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통로

"의 역할을 한다. 이 샤리아율법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Qur'an)과 이슬람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하마드(Muhammad)의 행적을 기록한 순나(Sunnah)에 근거하는데 사실 쿠란에는 "금융" 혹은 "이자(riba)"에 관한 내용은 자극히 미미한 분량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이자를 받는 자는 부활의 날에 서지 못하니 오직 사탄에게 매맞는 자만이 서있을 것이다" (쿠란 2:275) "이자를 수취하여 세상의 부유함을 늘리는 자는 알라와 함께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쿠란 30:39, 이상 필자 의역) 등 불과 세 구절 정도만이 이자수취를 저주하는 내용을 언급할 뿐이다. 여기서 이자는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이자(interest)"라기 보다는 "고리 대금(usury)"에 가까운 용어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상거래(trade)"를 이자와 동일시하면서도 "상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은 알라가



(도표1) 이슬람 금융법 체계

허용한 반면 "이자"는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쿠란"이나 "순나"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나 언급이 거의 없는 반면 이슬람 금융의 구체적인 근거는 경전보다는 율법해석을 통해서 도출된다. (도표1)는 샤리아율법의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는 결과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경전과 예언자 무하마드의 행적을 기초로 해석하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형성되며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국가의 법체계로 입법되어 생활법률로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 나. 이슬람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슬람금융의 기본원칙은 다음의 여섯 가지가 해당된다.

##### 첫째, 이자(riba)의 금지 : 금전운용을 통한

이자수취는 금지되지만 실제 경제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취득은 허용됨.

##### 둘째, 불확실성(gharar) 및 과도한 위험 (maisir)의 금지

##### 세째, 실제 상거래이더라도 도박, 포르노, 담배, 주류, 돼지고기 및 향락산업 금지 (haram)

##### 넷째, 파트너쉽 투자원칙(sharaka)

##### 다섯째, 유동성 보유금지, 대신 자선사업에 기부(zakat)

##### 여섯째, 상품 출시전 샤리아 위원회에서 해당 상품이 이슬람율법에 부합되는지 심사를 거쳐야 함.

상기 원칙에 근거해서 개발된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나 크게 분류하면 아래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

#### 무라바하(murabaha)

: 수요자가 필요한 원재료를 금융업자가 생산자로부터 구입해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

#### 이자라/이자라 와 크티나 (ijara/ ijara wai qtina):

금융업자가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형식

#### 이스티스나(istithna)

: 대규모 시설프로젝트에 대한 장기간 임대 형식

#### 무다라바(mudaraba)

: 채권형태로 투자펀드에 참여(sukuku)

#### 무샤라카(musharaka) : 합작투자방식

결국, 이슬람금융은 금전거래에서 샤리아율법이 금지하는 "이자(riba)"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해당 거래를 매매, 임대, 합작투자 형태의 상거래로 전환시켜 임대료나 이윤을 수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 다. 이슬람금융의 최근 성장이유는?

이슬람금융의 기원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파키스탄 및 이집트에서 태동되었으나 경제원리(상업성부족)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1970년대 들어 이슬람권 외무장관들이 제3에 모여서 이슬람금융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오일달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이슬람권 국가들이 국제금융시장에

서 큰손으로 등장하고, 반면 이집트, 파키스탄 등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슬람권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부국인 이슬람권 형제국 가들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금융지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슬람원리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이슬람금융은 연평균 15%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이룩하면서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배경에는 석유부국들의 원유수출에 따른 자본축적 이외에도 시장인프라구축 및 표준화에 따른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특히 서구의 글로벌금융회사들이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유사한 이슬람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샤리아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여 이슬람권에 진출하면서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 된데 있다.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이슬람금융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슬람금융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던 서구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샤리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면서 보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게 되었다. 한편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슬람권국가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등)들이 석유부국(사우디아라비아)으로부터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상품을 활용하고 국제금융 중심지를 구축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라. 이슬람금융 도입시 문제점은?

정부가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했던 이유는 국내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자금

조달원 다변화 및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이슬람금융에 주목하게 된데 있다. 구체적 실행형태로는 이슬람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금융환경조성을 위해 소위 "수쿠크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제정을 추진하였었다. 정부의 이러한 도입시도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주에 따른 저가의 수주 및 불리한 금융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슬람금융도입을 성급히 추진하려 한다는 정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논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찬성입장에서는 동 제도가 이자가 아닌 임대료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프로젝트대상 실물자산을 매개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취득세, 재산세,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 시 수익률이 저하되어 채권발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바 동 제도의 경제적 실질은 임대가 아닌 외화채권 이자지급이므로 다른 외화채권발행과의 조세형평성확보를 위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부동산거래와의 형평성, 외국인채권거래에도 과세하고 있는 정부의 세수확보노력과 상치됨은 물론 실제로 이슬람채권에 면세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 제도는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논쟁에 더하여 기독교계에서도 이슬람 종교 및 문화의 한국사회 침투로 간주하여 대응에 나섰는데 주요 논거는 동 제도는 금융거래가 아닌 종교행

위이며 이슬람금융에서 수반되는 기부금(zakat)의 용도가 불명확하여 심지어 테러단체에 지원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독교계의 대응은 동 제도의 도입을 좌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일반대중과 비기독교 사회로부터는 다 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일반 경제행위까지도 기독교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음과 더불어 교회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세력으로 비판 받게 되었다

#### 마. 기독교인의 대응방안은?

기독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계 7:9)이며 문화적 차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교인데 반해 이슬람금융은 경제행위를 종교적 원리로 지배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제도 도입 추진시 제도 본질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종교, 문화적인 논의로 변질되고 그 결과 이슬람은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종교의 논리로 경제행위를 순화시키는 반면 기독교는 일반경제행위까지도 그들의 논리로 지배하려는 독선적인 종교로 잘못 비쳐지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슬람금융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슬람금융의 한계는 그 자체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도입하는 국가의 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기독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이슬람금융은 과연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무슬림학자들은 서구의 계몽주

의 사상과 근대경제학이론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이익추구(self-interest)에 따른 인간의 탐욕과 폐해를 이슬람 경제원리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통해서 걸러내어 현대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샤리아율법에도 충실한 제도라고 이슬람금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은 **이익추구의 동기는 불변인 반면, 단지 이자수익을 다른 형태의 수익으로 전환시킨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주고 10만원을 이자로 받을 것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율법의 준수를 가장한 율법의 포장과 회피로서 오히려 이슬람 형식을 통한 이익추구를 통해 복잡성과 불투명성만 초래할 뿐이다.

도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 금융감독, 외환거래체계의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거래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특정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선별적인 세금면제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가 아닌 조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과 별개의 샤리아 위원회에서 상품의 심사 및 승인을 담당하는 제도 또한 금융감독체제의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제도의 성급한 도입 및 제도미비로 인해 위장된 외자유치,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탈세 등의 거래에 심각하게 노출된 적이 있으며 최근 점증하고 있는 국제간 자금세탁거래의 대응측면에서도 이슬람금융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기부금제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로 보인다.

이슬람의 세계(인간)관을 살펴보면 신은 그의 의지를 계시했으며 이러한 계시는 쿠란과 예언자 무하마드의 삶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 신은 주인으로서 명령하고 인간은 노예로서 복종한다. 무지한 인간에게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불신자의 처벌을 무하마드와 이슬람 종교에 위탁하므로서 이슬람의 권위를 통해 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샤리아율법이 시행되는데 인간은 선한 행위를 통해 보상을 얻거나 강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슬람의 성공법칙은 “무지=>보상 또는 처벌=>성공”이다. 반면 기독교의 세계(인간)관은 신은 그 자신(의지가 아님)을 계시했으며 이는 성경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 신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인간은 신과 동일한 형상으로 피조된 신의 자녀이다. 인간은 창조 주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며 신은 이를 보고 좋다고 여기신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독교의 성공법칙은 “범죄(타락)=>대속=>구원”이다. 따라서 무하마드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인간생활에서 샤리아율법을 적용하려는 이슬람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3. 나가는 말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fication)을 포용함과 동시에 영성(Spirituality)의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는 선교현장에 나가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본국에 남아서 사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상명령(마 28:19~20)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에만 안주하면서 헬라 및 로마문화권의 세계로 적극 나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 종파의 모습에 불과했을 것이다. 글로벌현상과 영적 혼돈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보다 확실히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금융 같은 새로운 현상에 직면했을 때 목회자들은 조직적인 연구와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고 평신도들은 각자 처한 직능분야에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과 문화를 포용하고 배타적으로 비추어지지 않으면서도 복잡하게 뒤엉킨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 등장하는 주제(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현명하게 수립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영적인 전투의 일부인 것이다.

#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선교

김아굴라 선교사

U국 선교사

## 1. 들어가면서

중앙아시아는 정말 특이한 지역이다. 예전의 글에서 중앙아시아의 정의는 언급한 바가 있고, 이 글에서는 협의의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에 대한 범위로 축소해서 전개하려 한다.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필드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중점적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먼저 이슬람의 유입된 배경과 현재 이슬람의 상황과 중앙아시아의 선교 상황과 전략 그리고 과제와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개하려 한다.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필자가 섬기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려 하고 필자의 사견이 강하게 피력되었기에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 2. 중앙아시아 이슬람 역사

### (1)이슬람 도입 배경

샤마니즘, 불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Nestorius)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 각종 종교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신흥 종교의 신도들인 무슬림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652년경부터이다. 이슬람교의 세력은 673년에 이르러 아무다리야(Amu Darya)강 유역을 정복했고, 676년에는 부하라(Bukhara) 지방을 정복했다. 특히 쿠라산(Khurasan)의 우마이야(Umaiya 705-715)왕조의 통치자인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Quataiba ibn-Muslim)의 행정부 시대인 712년에 이르러는 사마르칸드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원주민들은 새로운 종교 곧 이슬람으로 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의에 의한 개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전래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페르시아계 사람들에 의해 장악되어지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담당하던 페르시아계 소그드인(Sogdian)들의 이슬람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슬람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점차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제2단계**는, 페르시아의 무슬림 왕자의 전도 여행의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다.

**제3단계**는 중앙 아시아 지역 투르크족들이 대대적으로 이슬람화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탈라스 전쟁(Talas) 때문이었다. 이 전쟁에서 쿠라산의 압바스(Abbas) 지배자 아부 무슬림(Abu-Muslim)은 고구려 출신인 중국의 고선지(高仙芝) 장군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시킴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바르톨드(Barthold)에 의하면, 751년 7월, 지금의 아울리에 아타(Aulie Ata, 잠불) 근처에서의 고선지 군의 패배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역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중국이 아닌 이슬람 세계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 탈라스 전투로 인하여 서돌궐이 다스리던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의 종교였던 샤마니즘을 버리고, 일시에 알라(Allah)를 믿는 무슬림들이 되었다. 그러나 동돌궐이 지배하던 지역은 아직도 여전

히 샤마니즘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앙 아시아 지역의 투르크족 국가들 중 최초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는 발라사군(Balasaghun)을 중심으로 한 카라한조(Karakhanid, 840-1212)이다. 893년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카라한조 왕 사투크 부그라 칸(Satuq Bughra Khan, ?-955)은 이슬람교를 공식 국교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투르크족들 사이에 이슬람교의 세력이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14세기경에 이르러는 모든 투르크족들이 이슬람교를 그 매개로 하여 통일되었다.

중앙 아시아 지역의 투르크족들이 이처럼 쉽게 이슬람화 된 것은, 그들이 이슬람을 접하기 이전의 생활 패턴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우 적절했기 때문이다. 즉, 이슬람의 호전성이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경제적 생활을 지속해 가는 투르크족의 호전적인 유목 민족적 생활 패턴에 잘 부합했고, 성전(聖戰, Jihad)을 알라의 명령으로 신봉하는 이슬람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어서 투르크족들에게 이슬람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stdream.com에서 일부 발췌>

## (2) 구 소련 붕괴후 중앙아시아 정세변화

중앙아시아는 751년 이후 본격적인 이슬람화된 이후에 약 1200년간 이슬람을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영역에 뿌리깊게 하나의 역사와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1865년 이후 제정러시아, 구소련의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이슬람이 타종교의 박해와 더불어 숨을 죽

이고 있다가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독립국 가연합(C.I.S.) 구성되면서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과 터키와는 형제관계로 형성됨에 따라 투르크민족들은 터키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그들의 정체성을 예전의 그들 조상의 종교였던 이슬람에게 찾기 시작했다.

구소련 식민지 시대에 중앙아시아인들은 반러시아 감정으로 러시아의 기독교정교는 그들의 적대적인 종교로 규정을 짓고 십자가를 그들 종교의 원수로 보는 경향으로 변하였다.

이에 더욱더 그들의 정체성을 그의 반대정서로 이슬람을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독립이후 투르크민족들의 이슬람 종주국인 터키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슬람 선교사들의 대거 투입이 이루어져서 이슬람 모스크의 대량적 건설과 각

동네에 한 개 이상의 모스크가 건축되어지면서 더욱더 대중화되어졌다.

### 3. 중앙아시아 이슬람 현황

#### (1) 중앙아시아 정치와 이슬람과의 관계

구소련 독립이후 정권을 잡고 있는 주 세력들은 구소련 당시 공산당 서기당 간부 출신들이다. 카작, 우즈벡, 타지크는 23년째 장기집권중이고 투르크멘은 최초 집권자의 사망으로 친척이 세습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키르키즈스탄만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태로 정치 관계자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교인이라서 정권유지의 수단으로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가깝고도 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권당국에서는 정권탈취를 위한 극단적인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들을 특히 경계를 하고 있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며, 터키와 아랍권에서 파송한 이슬람 선교사들을 기독교 선교사들과 같은 선상에서 추방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당국은 민속적 이슬람의 유지와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슬람 사원 접근금지 정책을 펴고 학교교육의 소극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반대감정을 가진 고위층이나 경제적 상류층 자녀들은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등에 해외 유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이 다시 귀국했을 때는 취업의 곤란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강압적인 정권, 사회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조국을 떠나가는 것이 최근 젊은이들의 현황이

다.

## (2) 이슬람과 타종교와의 관계

중앙아시아에서의 다른 종교는 거의 터부시 한다. 이들도 실제적으로 코란을 가까이 하거나 읽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들어온 고정화된 이슬람의 관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분만이 유일한 창조자이며 구원자라고 믿는데 그가 알라(Allah)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러시아정교와 불교(절)는 적대시 하지는 않는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사실상 그들이



기독교처럼 적극적인 전도는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독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서구의 타락한 종교이고 구소련시절에 자기들을 식민지한 종교이고 억압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선교를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어오고 있다.

#### 4. 중앙아시아 선교 현황

##### (1) 독립후 선교 상황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중앙아시아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서방과 한국에서 대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특히 우즈벡에서는 고려인이 20만명 정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초창기 목회자 출신 선교사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인 고려인을 상대로 해서 교회개척하고 등록교회로 많이 세웠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은 우즈벡어를 사용하는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여 등록교회보다는 비등록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태로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을 하면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NGO사역, 농촌계몽사역, 병원사역 등을 연결 접촉점으로 삼았다. 카자흐에서는 카자흐어를 사용해서 교회개척, 러시아어를 사용한 교회개척 등 다양하게 초창기에 활발하게 교회개척 사역이 많이 일어났고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활동이 일어 났던 지역이기도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후 10여년 까지 활발하게 선교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종교정책의 강경화로 모두 추방되어 현재는 극소수 선교사만 남아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환경이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괄목할 상황은 아니고, 사역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중에 하나이다. 키르기즈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가 거주하는 나라로서 우즈벡 등 다른 나라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 (2) 최근 선교 상황

중앙아시아에서의 선교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가부장 중심제, 노인과 어른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청년이나 젊은 층의 선교사보다는 가정이 있는 시니어 선교사(40대이상)들이 활동하기에 효과적이고 편안한 지역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 가정의 가장(家長)만 영접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부감없이 영접하게 되는 분위기다. 필자의 예를 들면 우즈벡의 A도시에 5년간 교제하며 가족의 일원처럼 지내온 가족군이 있는데 6남매중 첫째인 A아저씨(63세)와 저는 의형제를 삼고 지냈으며 이 아저씨의 영접과 세례로 이들 가족전체(6남매 가족)가 집단개종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더 깊이 있게 개별적으로 쟁기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가서 성경과 예수의 이야기를 하며 세례를 주고 예배를 하는데는 전혀 반대가 없었다.

또한 이 지역은 아랍권처럼 코란을 읽고 알아서 이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좋은 관계를 끈기있게 계속 유지한다면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색인 것 같다. 필자는 이곳에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7년간 교제가운데서도 요지부동하다가 7년째 되는 해 어느 날 열매를 맺어서 온 가족이 영접하고 가정교회가 된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일관성 있는 신뢰관계와 집안의 어른들, 부부를 대상으로 교제하다 보면 자녀들까지도 한꺼번에 얻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우즈벡같은 경우에는 2005년 안디잔사태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입국한 사역자들을 제2기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추방이 많이 되어 몇 년이 지나도 사역을 시작도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장기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지금도 매월 2-3가정이 추방되는 추세이고 아무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이 땅을 섬기는 것이 최선책인 것이다.

이미 추방된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는 후임사역자들이나 잔존하는 선교사들이 맡아서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거의 추방된 선교사의 그룹을 잘 맡지 않을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지에 있을 때 빨리 현지 리더를 세우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핍박이 심한 국가인데 그 반면에 이로인해 자연스럽게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된 지역이고 참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복음전도에 열심이다. 그들은

학교, 직장, 가정에서도 핍박을 견디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상급 그리스도인들이다. 필자에 의해 세워진 집시교회가 그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교회개척과 동시에 자립교회가 되었다. 14가정에 40여명이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롯 글을 모르고 이 땅에서는 여권이 없는 비국적 자들이지만 천국의 국적을 갖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리고 옆나라인 카작교회의 상황은 또 다른 특색이 있는데 현재 우즈벡선교사들의 평균사역기간이 4-5년인 반면에, 카작은 대부분 10~15년 이상된 사역자들이 많다. 대부분 각자의 개척된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현지인 리더가 세운 교회에 협력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우즈벡교회가 피치 못하게 현지인들에게 빨리 이양되고 있는 반면에, 카작교회들은 장기간 외국인 사역자들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우즈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추방된 선교사가 지속적인 외부지원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회는 경쟁력이 약하고 자생력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본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는 따져봐야될 일이다.

## 5. 중앙아시아 이슬람 선교 전략

### <1> 접근 전략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신을 시인할 수 없는 체제 아래서 오랫동안 영적 공백기를 가졌다. 독립초기에는 대개 머리로는 무신론(진화

론)을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유신론(이슬람)을 느끼는 기형적인 영적 혼란기를 가졌다. 하지만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회복 운동이 크게 일어난 후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성전(聖戰, 지하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처럼 과거에도 이슬람이 집단적 민족종교는 되었지만 개인적인 종교는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노래하고 춤추고 놀기를 좋아하는 감정적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율법적인 이슬람 교리를 실제 생활속에서 나타내기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획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수준, 연령, 출신 배경, 거주 지역, 직업, 가정 환경 등에 따라 개인신앙의 편차가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접촉한 자의 영적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전도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에 따라 개인전도 전략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지극히 보편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 (1) 만나는 모든 자들은 복음의 대상이다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만나 전도하는 것은 이슬람권이라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앙아시아인들과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단기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직접 체험하셨겠지만 지방사역으로 각 가정에 침투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은 평상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공원에서 처음 만나 몇 분만에 가까운 사이로 변할 수 있고, 식사 한번 같이 하면 "빵을 쪼갠 사이"로 형제처럼 대하기도 한다. 그래서

만난 즉시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인 예비하신 자인지 잘 모른다. 전도란 하나님인 예비한 자를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한다. 움직이지 않고는 만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학교에서, 공원에서, 버스에서, 시장에서 오늘도 우연히 만난 사람들, 때로는 일부러 전도하러 나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전부터 안면이 있던 이웃사람이 하나님인 예비하신 복음의 대상이 아닌가 민감하게 느껴야 한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 (2) 선택적 접촉을 한다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과거 60-70년대 우리가 쉽게 경험했던 그 순진한 시골의 맘씨 좋은 분들을 연상하면 된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들은 쉽게 손해 보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줄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걸리면 사람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충성과 복종 그리고, 배반의 주기적으로 순환된 약육강식의 중앙아시아 스텝의 생존 원리가 아직도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선이나 도덕, 경건보다는 남자다운 태도와 환대를 더 미덕으로 생각한다. 장사를 하면서도 가격을 속이는 것에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것도 탁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실크로드의 유목민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외국인을 생계의 수단으로 접촉하는 동기가 불순한 자들도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등을

돌리는 자들도 있다. 한편 경찰, 안기부 등 행정정보 분야에서 일하는 무슬림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하지만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만난 자들을 모두다 교제권에 둘 순 없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우리 판단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되겠지만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뭔가 가치를 두고 일하는 자, 성실한 자,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는 자를 더 자주 만나 깊게 교제할 수밖에 없다.

### (3) 개인들의 정체성과 영적 상태를 파악한다

무슬림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려 할 때, 저항과 반발이 생기곤 한다. 이러한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신변과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신실한(?) 무슬림과 기독교 사역자가 만나면 불똥이 튤다. 서로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나기 때문이다. 내가 만났던 자들 중에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을 보니 당신은 이슬람으로 또 개종해도 문제 없겠다”고 도전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수준의 무슬림인지, 그의 영적 상태와 정체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전도에 매우 유익하다.

#### 가. 당신은 어떤 언어가 더 편합니까? 러시아어 혹은 우즈베크어?

중앙아시아 무슬림은 대개 모국어를 제외하고 한 두 개의 언어를 더 구사할 수 있다 (bilingual state). 크레믈린이 살아있을 때는 도시에서는 러시아어, 시골에서는 자신들의 모국어(무슬림어)를 주로 사용했었다. 그 영향력으

로 아직도 도시에서는 러시아어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 중 어느 말을 더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번쯤 질문이 필요하다. “꿈을 어느 말로 꾸느냐?” 이 때 그들은 대개 당황해 한다. “꿈꿀 때도 말을 하나?” 그러다가 대답한다. “나는 무슬림 말로!” “나는 러시아어!” **모국어로 꿈꾸는 자들은 당연히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말로 꿈을 꾸면 자신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거나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어를 더 잘하는 무슬림 (Russian-dominant muslim)이라면 크게 긴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무방하다.

#### 나. 가족중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중앙아시아는 200여 종족이 몰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이라도 다른 종족간에 결혼한 가족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아르메니아인 등 기독교 배경을 가진 모친이나 할머니가 있는 경우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좀더 복음에 수용적이다.

#### 다.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를 통해 출신지(고향)를 분석한다

지역에 따라 이슬람이 강한 지역도 있고 덜한 지역도 있다. 영적도해를 해보면 역사적 종교적인 유적물이 많고 사단의 요새화된 황폐한 지역도 있고, 때론 복음에 수용적인 지역도 있다. 어떤 사역자가 이끄는 모임의 시골출신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4c경 카프카즈 최초

의 기독국가였던 알바니아 지역 출신들이다. 우연이라고 결코 얘기 할 수 없다. 과거 복음이 꽃 피웠던 지역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간단히 종교 문제를 화제삼아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탈르쉬족(Talish People)이 주로 사는 L지역이나 이슬람의 요새인 S지역 사람들과는 사귀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접촉할 때 말투나 방언으로 그의 고향을 추측하고 복음에 열린 지역인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영적도해를 통한 지역연구는 개인전도에도 큰 유익을 준다.

## <2>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향한 전도 전략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슬람에서 보상받으려는 기대감과 더불어 터키, 이란,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들의 진출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부흥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고 쿠란을 읽어본 자도 많지 않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수피즘(sufism)이다. 11세기 셀축 제국의 남하에 따라 페르시아, 중동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투르크족에 의해 수피즘이 생활에 보편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수피즘은 전통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이 합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신의 사랑 개념이 희박한 전통 이슬람과 달리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신의 사랑을 노래하며 각종 무속이 혼합되어 있어 점을 치고 운세 보고 점성술을 즐기곤 한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선지자 이소(예수)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자들은 거의 없다. “우리 선지자야”하고 반응한다. 여러 신종 능력있는 선지자 하

나 더 믿는다는 개념으로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무슬림이 영접을 한다는 의미가 “예수만을 따르겠다는 진실한 결단인지? 아니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알아보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예의로 거절하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특히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고정관념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해 종교를 비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구별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을 오가는 철새로 세상에 남게 된다.

### (1) 이슬람 고정 관념에 대한 대응전도전략

#### 가. 우리 투르크족은 이슬람, 슬라브족은 기독교, 한국인은 불교

이슬람의 **움마(umma)공동체** 의식은 신앙심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들은 처음보는 자에게도 형제, 누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 이슬람 공동체 의식은 혈령해 보이나 예상외로 단단하고 견고하다. 투르크족의 종교가 이슬람인 것처럼 각 민족도 집단의 종교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르크족은 이슬람, 러시아는 기독교, 한국인은 불교신앙을 집단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이 아닌 “우리는 무슬림이다”라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예수를 전하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왜 러시아, 구라파 종교를 나에게 전하느냐고 거절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투르크족은 모두 이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깨야 한다.

**(가)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언급하는 그들의 집단적 전체적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그래야 이슬람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훌로서기를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은 심판 때도 알라 앞에 민족이 집단적으로 심판 받느냐? 아니면 심판시 알라 앞에 혼자서느냐?” 즉 그날에 당신의 인생에 대해 누가 답변할 것인가?라는 질문하면, 대부분

“내 인생은 내가”라고 응답한다. 당연한 대답이다. 이 가벼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단어, 신앙의 집단성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한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임을 이러한 질문과 대화로 시작한다.

**(나) 다른 투르크족의 종교 상황에 대해 정보를 준다.** 투르크족은 모두 이슬람도 아니요 처음부터 이슬람을 믿었던 것도 아니다는 것을 전한다. 지금도 샤마니즘이나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는 사하족(야쿠트), 알타이, 학카스 등이 있고, 가가우스 투르크족은 기독교, 투바 투르크족, 칼목족은 라마불교를 믿고 있다고 설명하면 “왜 그들은 투르크족인데 이슬람이 아니지?” 스스로 물으며 조금은 의외로 생각한다. 그들의 고정관념에 약간의 흠집이 생기는 순간이다.

**(다) 선교에서 지역 연구(area study)는 필수 과목이다.** 그 민족의 역사를 잘 파악하는 것은 전도에 큰 효과를 준다. 아제리 종족의 “바백” 장군은 9c경 아랍 이슬람이 진출할 때 손과 발이 짤리기까지 대항하여 아제리 민족의 가

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로 여겨진다. “바백이 아랍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웠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 한마디로 “우리는 무슬림” 개념을 간우뚱하게 할 수 있다.

#### **나. 이슬람은 유대교, 기독교를 거쳐 완성된 가장 상위의 종교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이슬람의 발전에 기여한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며 최고로 발달한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도 무함메드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무슬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대교가 발전하여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발전해서 이슬람이 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나는 아래에서 언급한 것처럼 쉽게 쉽게 때론 농담처럼 툭툭 던지며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곤 한다.

**(가) 먼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 촍점이다.** “기독교를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대화는 시작된다. 대부분 “이쏘 빠이감바르(예수 선지자)!”라고 답한다. “No! 이슬람 설립자는 무함메드지만, 기독교 설립자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오직 죽고 부활하셨을 뿐이다. 종교를 조직하고 결성한 적이 없다. 예수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쓴 적도, 들어 본 적도 없다. 후에 예수믿는 자들이 신앙을 체계화하다가 325년 제도화된 것이 카톨릭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카톨릭이나 그리스정교(동방정교), 러시아 정교는 지극히 제도화된

종교다. 나는 오직 성경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굳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개신교도(Protestant)라고 한다. 1517년 이후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려 노력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말이다. 십자군 전쟁때 희생된 무슬림보다 더 많은 개신교도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다가 제도화된 종교 카톨릭에 살해 되기도 했다.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처럼 개신교를 차별화하면 집단종교가 아닌 개인신앙을 강조한다.

**(나) 둘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종교”가 아닌 “예수”를 통해 이루셨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아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리고 구원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까지 언급해야 무슬림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11:26)”는 말씀처럼 앤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무슬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선입견은 구라파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저항감이 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수를 따라 가는 자가 되는 것”으로 소개한다. 나중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알고 선포하게 된다.

**(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발전이 아니다. 유**

대교의 완성이다. 유대교가 믿는 구약은 메시야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요, 신약은 그 메시야 예수가 왔고 다시 오실 것의 기록이다.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통로를 만든 유대교는 zero다. 율법만으로는 어떤 구원도 없고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율법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구원은 100%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완성되었다. 더 이상의 종교도 필요 없게 되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히11:2).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왜 다시 너희들은 선지자 구약의 시대로 돌아 가려 하는가? 그것은 퇴보일지 모른다!” 오히려 이슬람교가 유대교와 같은 구약과 율법의 수준에 있음을 언급하며 그들의 고정관념에 한번 더 충격을 가한다.

**다. 선지자는 완전하다 --모든 선지자는 죄인, 예수만이 의인**

무슬림들의 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은 대단하다. 특히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모하메드 등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죄가 없이 완전하다고 주장한다.

**(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 살았던 자는 없다.** 일생의 어느 기간만 선지자로서 그 일을 담당한 것이다. 모세는 선지자로 40세에 선택을 받았고, 어떤 선지자는 몇 년간만 하나님에 쓰셨다. 선지자 일을 하기 전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선지자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던 시기는 죄인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선지자에 대한 환상을 깨준다.

**(나) 성경과 쿠란을 이용하여 선지자들이 죄인임을 알려준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으며(수라7:18), 아브라함도 자기부인을 두 번이나 누이처럼 속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수라14:42), 모세는 사람을 죽였으며, 다윗도 간음죄를 범했고, 용서를 구했다(수라 38:23). 무함메드에게도 예외는 없다. 쿠란에 “무함메드! 너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수라47:21)”라고 3군데에서 알라는 말한다. 즉 마호메드도 죄인임을 쿠란은 증명한다. 모든 선지자는 죄인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쿠란과 성경은 예수에 대한 죄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한 의인임을 전한다. 예수 안에만 의가 있다.

## (2)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한 대응 전략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예수를 쉽게 영접하는 만큼 쉽게 최소화한다. 그들은 흔히 “우리는 선지자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죄없이 의롭게 살다간 이슬람의 여러 선지자 중의 하나일 뿐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없다. 결모습은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완전히 다른 이들에게 ‘구원’은 없다.

가. 성경의 추락된 권위 -성경은 변조되었다.  
이슬람 교리의 원천은 알라의 계시를 모아

놓은 꾸란(Quran)과 무함메드의 언행록 하디스(Hadith)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의 세부적 해설서라 할 수 있는 하디스의 도움이 없이는 꾸란의 깊은 뜻과 교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슬람 5대 의무에 대해서 꾸란은 단지 “예배드리라(Ibodat)”, “순례(Haji)의 시기는 잘 알려진 달에 하느니라”(수라2:197)라고 쓰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루5회 예배하도록 명시한 것도 하디스요, “순례는 둘히자(이슬람력 12월)에 한다”고 기록된 것도 하디스이다. 이슬람의 일상생활에서 하디스의 영향력은 꾸란을 능가한다. 한편 모세의 율법서 토라(Tavrot)와 시편(Zabur), 인질(Injil) 역시 거룩한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느니라”(수라29:46) 그러나 꾸란에 대해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성경의 권위는 꾸란에 훨씬 못 미친다. 그 이유는 첫째, 무슬림들이 보기엔 꾸란은 상당 부분 알라가 직접 1인칭으로 선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선지자와 그 제자들의 말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해설과 이야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분량이 매우 적다고 평가한다. 둘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꾸란의 권위를 더 높게 평가한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성경, 읽고 던져버리는 성경과 보물처럼 좋은 곳에 보관하는 꾸란과는 그 가치를 견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보다 더욱 결정적인 원인은 성경이 변조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꾸란 자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어 성경을 거룩한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사상가들은 성경 원전(原典)의 권위는 인정 하지만 지금의 성경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끔 이슬람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거룩한 책을 베끼면서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 온 책이라고 말하면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그것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수라2:73을 근거로 성경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꾸란은 틀렸고 성경이 옳다거나, 성경은 변조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상당수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성경이 변조되었다는 이슬람의 주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는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 특히 66권 성경의 쓰여진 시간, 공간, 역사적 배경, 저자들의 인격이 모두 다르나 그 내용과 목적의 통일성,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들이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꾸란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의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믿음 없는 무슬림과 논쟁이 생겨 교제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꾸란이 세속적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므로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시키면 된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현지인 형제가 “당신은 꾸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 일단 “네가 스스로 읽고 판단하라.”고 간접적으로 답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성경이 변조됐다는 가르침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무슬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먼저 무

슬림들이 꾸란을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기독교인도 성경을 귀히 여긴다고 언급해 준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8)라는 성경의 기록을 예로 들어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의 이러한 말씀에 대항하여 일부러 변조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그리고 “성경 원전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면, 누가 원전을 읽고 변조됐음을 확인했는가?”, “성경을 변조시킨 당사자와 증거가 있는가?”, “이슬람에도 순니파, 시아파가 있듯이 기독교에도 많은 교파가 있는데 한 교파가 성경을 변조했다면 다른 교파가 가만 있었겠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다.

꾸란을 보면 무함메드가 성경의 확증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보낸 것에 대해 의심이 들거든, 너희보다 먼저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대에게 우리는 진리와 성경에 대한 확증이 담긴 꾸란을 보낸다.”(수라 5:51)라는 구절들을 근거로 질문할 수 있다. “만일 성경이 변조되었다면 성경의 확증이 담긴 꾸란의 권위도 훼손되는 것이다. 성경이 변조됐다면 어떻게 성경이 변조된 것도 모르고 꾸란이 성경의 확증을 담긴 것이라고 계시할 수 있겠는가! 무슬림들이 어제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신의 계시로 꾸란을 믿는다면 꾸란이 지금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따끔하게 마무리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성경변조 주장 가운데서 이슬람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번역본은 바**

**나바 복음서이다.**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탈리아인에 의해 16세기 이전에 쓰여진 바나바 복음서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교정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했으며, 메시아로 예수 대신 무함메드가 올 것이라는 이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무슬림들에게 환영 받는 이 왜곡된 복음서의 오류 투성이다. 나사렛이 엉뚱하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누구나 다 아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조차도 잘못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을 명백한 거짓이라고 증명할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나. 왜곡된 삼위일체 -기독교의 신은 셋이다

“알라와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 일체설을 말하지 말라.”(수라4:171) “하나님이 셋 중 하나라고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니라. 하나님 한 분외에는 없나니”(수라5:76)라는 쿠란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대개 기독교인들의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 성자 예수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 마치 신이 셋인 것처럼 삼신론 혹은 다신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그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나와 나의 어머니를 신으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영광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말할 권리도 없나이다.”라는 수라5:119의 말은 기독교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구절이다. 이러한 개념은 과거 아라비아 반도에 퍼져있던 잘못된 기독교 이단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

해 줄 수 있다. “성부, 성모, 성자의 삼신론은 과거 아라비아 반도에 널리 퍼져있었던 네스토리우스파의 잘못된 신앙이다. 무함메드도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개념을 고치려고 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고 이 세 위격은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도 너희 이슬람처럼 신이 하나라고 믿는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쉽게 깨지지 않으므로 “신은 셋이 아니고 하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일신의 의미가 숫자적인 의미로만 강조되지 않도록 직접 성경을 읽게 하여 확인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6:4)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엡4:5-6).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7)

#### 다. 예수의 출생을 아담의 수준으로 평가절하

무슬림들은 예수가 성령으로 임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담처럼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도다.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말씀하셨다.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느니라.”(수라3:59) 즉 예수도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성령으로 임태됐다(수라3:45, 47)”고 기록한 또 다른 꾸란의 증거를 들어 반문할 수 있다. “무함메드

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부모가 있는데, 왜 예수만 성령으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만 던져도 효과가 있다. **성경과 꾸란이 함께 증거하는 예수의 출생은 분명히 독특하기 때문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라는 계획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임태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슬림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의미있는 사건으로 주목하게 하여 특별한 예수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담처럼 한마디 던진다. "개와 개 사이에 태어나는 것은?" "개!", "고양이와 고양이 사이에서는?" "고양이!", "그럼 개와 고양이 사이에서는?" 대개는 피식 웃는다. 그리고 본론을 꺼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 "성령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무엇이 되는가?" 그들은 좀 당황한다. 선뜻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 성령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적어도 특별한 분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조금은 유치해 보이지만 통찰력 있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 원죄로부터 구원의 길까지 설명해 준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 너는 투르크족, 나는 한민족 그러나 우리는 민족에 관계없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로 친근감과 통일성을 보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다. 그런데 먹었니? 안 먹었니?" "먹었지!", "죽었니 안 죽었니?" "안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는가?" "그럴 리가?" "맞아! 그럴순 없지. 뭔가 죽은 거야. 바로 그들의 영이 죽은 거야!" 아담, 하와의 범죄로 영적 사망선고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이

에서 태어난 자는 원죄를 안고 영적 사망상태로 태어난다. 이때 준비한 종이를 꺼내 다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다. "범죄 후 영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까맣게 되었다.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까맣게 태어난다. 인류 가운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 누군가? 없다. 모든 선지자들도, 무함메드도 역시 암둘라와 아미나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들도 다 까맣다. 꾸란도 그가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꾸란을 펴서 보여준다. 계속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다. 모든 사람은 영적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임태했기에 이 반열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꾸란도 성경도 예수가 의인임을 증거하고 있다. 주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저를(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요3:15).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 고전15:45), 아담은 피조물이며, 예수는 창조주인 것이다."

#### 라.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 -그는 선지자!

"실로 알라는 단 한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느니라."(수라4:171), "알라의 부인은 없으며 아들도 없다.", "알라는 아들을 가질 필요가 없느니라."(수라 19:35) 등 꾸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구절이 26군데 이상 쓰여 있다. 무슬림은 예수를 선지자로 존경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한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으며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요일4:2-3)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철저히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는 무슬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선지자중의 하나일 뿐이냐를 두고 싸우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무슬림과의 대화는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우기는 무슬림을 만나면 나는 대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맞아! 예수는 선지자지!” 그러면 그들은 의외라고 놀란다. 말이 통하는 기독교인을 만났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때 한 술 더 떠서 “알라와 마리아 사이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돼! 어떻게 알라에게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는가!” 그 꾸란 구절까지 펴서 보여주기도 한다. 이미 호감이 생긴 무슬림에게 계속 말한다. “그런데, 예수는 선지자요 그의 어머니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 모두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꾸란 수라5:78처럼, 음식 먹는 것까지 강조한 것은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음식 먹는 인간 마리아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말도 안된다! 무함메드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는 옳은 지적이다!”

당시 만연해 있던 이단 사상을 교정한 무함메드의 노력을 인정해 주면서 꾸란의 부인(否認)이 육체적인 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를 하나

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로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과 영적 본질이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를 단지 선지자라고만 하면 50%만 옳은 것이다. 육적으로는 선지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100% 맞다.” 그리고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을 맺는다 .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롬 1:3-4)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은 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본질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 적어도 한번 고민하게 할 수는 있다.

#### 마. 사라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들은 그를 살해치 아니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느니라.”(수라4:157), “알라께서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수라 4:158)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지만 예수는 죽지도 않고 못 박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알라가 가룟 유다를 예수의 모습으로 변장시켰다고 알고 있다. 또 구원은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공의의 하나님 이 구태여 죄없는 착한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예수 십자가 사건은 느닷없는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오랫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 자신이 스스로 언급한 약속된 예언의 성취임을 알려 준다. “섬기라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의 대속물로 주셨다.”(막10:45) 그리고 “만일 유다가 대신 달렸다면 유다가 병어리니!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왜 고함치지 않았나?”라는 의문에 대해 한마디 해준다.

### <3> 이슬람권을 향한 복음전도의 힘- 긍휼(Mercy)과 능력(Power)

이상은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향한 전도현장에서 경험했던 몇몇 주요 issue와 case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실전에서 이러한 전도전략을 통해 무슬림들의 고정관념을 깨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예수영화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저들을 공략했었다.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 사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슬람의 논리를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슬람 선교는 지루하다. 저들의 편견과 오해를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어느 날인가 축적된 주의 말씀이 마침내 생명으로 나타나길 기다리는 작업이다. 사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이슬람 자체보다도 기독교와의 충돌했던 역사 속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와 분노이다. 논리로 이겨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힘은 성령의 열매 즉, 긍휼이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마음이 저들 가운데 생겨야만 마음이 열린다.(딤전1:16). 우리를 오해하고 욕하고 팝박하고 배반해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과 모든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긍휼! 이는 아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 즉, 능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선교는 결국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다. 예수냐? 알라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알라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선교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한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며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영적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긍휼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쩌면 전략은 수고로 그칠지 모른다. 긍휼(Mercy)과 능력(Power) 그리고 전도전략이 힘을 모으면 견고한 이슬람의 진은 깨어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것이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후12:12)

## 6. 중앙아시아 선교 과제와 비전

“밀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 불현듯 생각난다. 짧은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의 선교사역을 했지만 괄목할 만한 열매가 없고 끊이지 않는 선교사 추방으로 불안하고 비장기적인 선교전략과 대책으로 닥치는 대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전하고 하였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물론 아직까지 오랜된 선교사에 비하면 세월의 투자가 부족하지만 마음만 앞서간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선교는 한정된 지면에서다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중

앙아시아 5개국 모두 아직도 순수한 프로테스탄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종교법의 강화와 정치적인 장기집권화에 따른 외부 위협세력의 제거 일환으로 기독교 교회들의 핍박과 선교사 추방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신앙의 체계화에 방해를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신자들 중에 직업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어감에 따라 자기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면서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 참된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많지 않다.

외국에서 신학을 하고도 고국에 돌아와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드물고 공부했던 그 나라에서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이들이 더 많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적다. 이러한 자들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계속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가난과 역경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요 마지막 비밀병기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의 추세로 봄서는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으로 동시에 선교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공격적인 선교전략과 수비적인 선교전략으로 나누어서 그 전략에 적합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양육하며 그 나라에 적합한 전략을 재조정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예컨대 핍박과 추방이 극심한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단기적인 플랜과 공격적인 선교전략으로 대응하고, 카자스탄이나 키르키즈스탄 같은 곳에서는 장기적인 플랜과 수비적인 선교전략으로 주변의 열악한

선교지를 방어해주면서 지원해주는 후방전략적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어느 한 나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우즈벡 선교사들은 추방되는 것이 시간문제인데 우즈벡 민족들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카작이나 타작 그리고 키르키즈스탄에 산재해서 살고 있는 우즈벡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즈벡 변방에서부터 공략해서 그들을 키워서 자기민족에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략이라든지, 우즈벡의 기존 신자들을 주변의 국가로 불러내서 더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자기민족을 섬기게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파송한 한국교회에서도 위와 같은 색다른 방향에서 선교전략을 수용하고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또 하나의 과제는 선교사의 마인드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가 개척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현지인 리더를 빨리 세우고 현지인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양하고 빠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세운 현지 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교회는 나약해지고, 자력 갱생력이 부족하며, 자발적인 헌신도가 낮아지며, 핍박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선교사의 타이틀, 선교사의 사역, 다른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로부터의 인정받는 것, 선교사의 안정감, 내가 이루었다는 집착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이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인 이기심 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안정감이고,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나의 사역, 나의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떠나갈 수 있는 멋진 선교사가 중앙아시아에 많아지기를 소망해 본다.

중앙아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들이 될 것으로 본다. 예전의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고 동서문화의 요충지이며 이들의 언어는 보통 두세 개 이상(러시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투르크어 등)은 다 가능하고 어떠한 문화에도 충격이 많지 않아서 쉽게 적응하는 탁월한 잠재력을 소유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회개와 참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들은 목숨 걸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7. 맷음말

불과 10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선교계에서 침투불가능 국가로 분류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두려움 없이 그들을 죽이던 죄 많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셨다. 또한 지난 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침투 불가능한 종족 중 하나로 분류되던 한민족을 향해 아시아 대륙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보여주시며 “가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향해 지독하게 저항하던 한민족을 이토록 변화시킨 기적을 체험한 우리로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천과 열매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들과 같은

아시아인으로서의 문화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금세기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체험신앙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산 넘고, 물 건너, 대륙간의 문화의 장벽을 힘겹게 넘어오는 서구의 형제들과 엇비슷한 수준의 사역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부끄러운 결실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아시아, 적어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에서 우리는 선봉에 서서 그 첫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국가들이 복음을 향하여 저항한다고 하지만, 우리 한민족 만큼 지독하게 저항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슬람권의 수많은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그 어떤 민족도 “침투 불가능”이란 대단한 “별”을 달고 있지는 않다. 우리 민족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산 증거와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권을 향한 분명한 승리의 전략과 그것을 이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야말로 역사적 사실로써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슬람권에서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다. 한 명의 제자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사역해야 하는가? 몇 명의 현지인을 찍어 놓고 날이면 날마다 그를 만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아무런 결실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지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때로는 진정으로 준비된 자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찾는 "한 영혼"의 의미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숙된 사역자의 자질이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좀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기 전에 이 문화권에서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한 "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어야만 한다. 사도와 같은 현지인 제자들은 사도와 같은 사역자를 통하여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지 않고는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해도 그를 훈련시킬 수 없다. 우리의 사역대상은 넓을 수록 좋다. 즉 우리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것만 이 이

슬람권에서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늘 복음 증거하는 삶에 깨어 있으면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한 그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된다.

이슬람권에서의 우리의 사역은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느 누구도 미전도 지역 한 곳에서 평생동안 사역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 까지 힘에 지나도록 돌아다니며 온 땅을 밟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아직도 사역자가 없는 마을과 역사 아래로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옆에 놓고 앞마당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착 사역과 함께 모바일 사역을 동시에 해 나간다면 적은 수의 사역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광범위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의 수가 적다느니, 환경이 어렵다느니, 아직 때가 안되었다느니 하는 모든 핑계는 재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으로 몰고 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죽도록 복음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끝으로, 얼마전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하는 모습과 선언문을 보고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재헌신을 했다. 종교통합하려는 교활한 무리들, 배도하는 한국의 많은 교회지도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체 그냥 유명한 과거의 습관된 학습된 지도자들만 방향감각 없이 따라가는 무고한 양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현상을 실감나게 목도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이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가 필요충분조건이다.

다시 한번 더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온 지구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고여 있는 열방 곳곳 변방에서 지금도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불철주야로 선교사를 보내놓고 눈물과 사랑과 정성 그리고 재정적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

고 있는 오직 예수만 신뢰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님께 이글을 바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4:12)”



#### 참고 자료

인터넷 및 인터콥 이슬람 및 중앙아시아 강의 자료 참조

# 역사의 훈련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아랍교회

민가자 사역자  
아랍 사역자

## I. 들어가며

최근 아랍은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달리며 역사의 큰 파도를 타고 있다.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폭탄 테러와 종파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의 난민들이 떠돌고 있다. 또한 2011년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독재자 축출과 함께 리비아 전쟁으로까지 이어졌고, 이집트는 혁명의 성공을 자축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된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 있으며, 시리아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되면서 주변국으로 흘어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난민으로 살고 있다.

이 혼란과 역사의 큰 파도 속에는 2,000년 전 초대교회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아랍 전통교회들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시리아 인구의 10%, 이집트 인구의 10%, 레바논 인구의 40%, 이라크 인구의 5%가 기독교인 것이다. 7세기 이슬람이 태동하여 현재까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켰다. 핌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종교생활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

나 최근 아랍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의 편안한 삶이 도전받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보며, 마지막 시대에 아랍교회의 부르심과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보고자 한다.

## II. 변화된 정세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

### 1. 이라크 2003년 전쟁 전후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강력한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정권의 보호아래, 비교적 평화스럽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후세인 정권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테러공격을 막아왔다. 당시에는 기독교 신자의 정계진출도 비교적 활발했다. 1979년부터 2003년까지 부총리를 지냈던 타리크아지즈(Tariq Aziz)는 기독교인이며, 사담 후세인의 최측근으로 유명하다. 이라크 인구의 30%를 이루는 순니파 출신의 사담 후세인 정권에 소수파인 기독교인들은 적극 협력하였고, 후세인 정권은 이라크 교회 및 기독교인들을 철저한 치안으로 보호해주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에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협력자로 지목되어 테러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 11월 3일 '이라크이슬람국가(ISI)'라는 알카에다 관련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모든 기독교 거점과 단체, 조직, 지도자와 신

도는 이슬람 전사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라크 내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줄 세상 정권은 사라지고 없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2. 시리아 내전 전후

시리아 전 대통령 하페즈알아사드(1971~2000)와 그의 아들이자 현재의 대통령인 바샤르알아사드(2000~현재)는 시아파 분파에 속하는 알라위파 출신이다. 대통령이 소수파인 알라위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소수종파인 드루즈와 기독교에 대해 보호정책을 써왔다. 당연히 드루즈와 기독교인들은 알라위파 정권에 대해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각 종파별 종교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시리아에서는 국가기관의 각 부서는 한 종파로만 구성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왔다. 한 부서에 모든 종파가 섞여 있음으로, 서로를 감시하며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1982년 하마시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만 명을 사살하는 대학살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 이후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은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주변 아랍국가에 힘입어 시작된 독재정권을 향한 시리아 사태는 인구의 70% 이상인 순니파의 주도로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위 초기

부터 공공연하게 “순니들이 알라위와 드루즈를 무덤으로, 기독교인을 레바논으로 보낸다”라는 말이 퍼져 있었다. 그동안 알라위파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공존했던 시리아 교회는 내전이 끝나고 현재의 정권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이전에 가능했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시리아 교회의 보호자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 3. 이집트 혁명 전후

무바라크 전 대통령(1981~2011)의 독재 정권 시절에는 확실한 치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 인구의 10%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은 보호를 받아 왔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와 큰 개신교회 예배당 입구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원리주의 무슬림이 교회 건물 내에 들어와서 테러하는 것을 방지할 정도였다. 시리아의 교회가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왔던 것과 달리, 이집트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집트 교회는 과거 정권 아래서 종교적 자유를 누려 왔다.

혁명 이후에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형제단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자신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핍박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대선에서 과거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샤피크를 지지하였다. 청년들이 피흘리며 쟁취했던 혁명의 수고를 1년 만에 망각하고 또다시 과거 독재 부패 정권의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로 인

해 국가의 안위와 미래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선택했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선거 결과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무르시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 혁명 이후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면, 무슬림 경찰들이 도착해서는 상황을 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고 한다.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권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누리던 안정된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 때야말로 이들이 하나님만 찾으며 의지할 때이다.

### 4.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라크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시리아는 시리아 내전 이후에, 이집트는 혁명 이후에 각각 독재정권의 기독교 보호는 끝이 났다. 각 국가의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들의 득세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를 위협받고, 고난으로 믿음을 도전 받고 있다. 더 이상 세상 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의지할 수 없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 III. 교회에 닥쳐 온 위기와 고난들

아랍지역의 계속된 분쟁과 혼란 가운데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는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과 폭력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고,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에 싸여 있거나 이를 피해 도망하기도 했다.

#### 1. 이라크

이라크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무슬림 무장세력에게 공격당했으며, 바그다드 시내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히잡을 착용해야만 했다.

- 2004년 8월 1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북부 모술 등지의 교회 5곳에 모두 6건의 폭탄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했다. 연쇄 차량 폭탄테러는 주일예배시간에 발생했다.
- 2009년 7월 12, 13일 바그다드, 모술 등지의 교회 7곳에서 폭탄공격이 발생, 최소 4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 2010년 10월 31일 알카에다 무장세력이 바그다드 '구원의 성모 마리아 교회' 급습해 4시간 동안 120명을 억류한 채 인질극을 벌였고, 진압 과정 등에서 미사에 참석했던 신자 44명과 신부 2명, 이라크 보안군 7명, 인질범 5명 등 58명이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이 부상당했다

#### 2. 이집트

이집트 내에서는 혁명 이후에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카이로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의 교회는 무슬림들로부터 방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011년 1월 1일 00시 20분 송구영신예배때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알키디신 교회에서 폭탄테러로 21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당했다.
- 2011년 9월 30일 이집트 남부 아스완 지역에서 건축 중이던 콥틱 교회 건물이 괴한들의 방화로 불타면서 이집트 콥틱 기독교도들의 시위가 10일 이상 계속되었다. 급기야 10월 11일 이집트 콥틱 기독교 시위대가 군과 충돌하면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도 약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3. 리비아

- 2012년 12월 30일 리비아 제3의 도시 미스라타에서 이집트인 콥틱 기독교도들의 교회에서 폭탄테러로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 2013년 3월 1일 이슬람 근본 세력인 살라피스트들이 벵가지에 있는 교회를 공격해 이 지역에서 일하는 이집트 기독교인 100여 명을 붙잡았다. 이집트인 일부는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 살라피스트 세력은 이집트인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산성 물질을 이용해 손목에 표시된 십자가 문신을 지우기도 했다.

#### 4.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한다. 사단은 이라크 전

쟁, 리비아 전쟁, 이집트 혁명, 시리아 내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왕국을 더 확장하고 견고히 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들의 부흥을 통하여, 사단의 통치를 더 확고히 하려 한다. 그리고 아랍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주일 예배시간에 교회에 폭탄테러를 가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더욱 심어 주고, 교회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이들로 하여금 아랍지역을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역에서 300개가 넘던 교회 건물은 현재 57개밖에 되지 않는다. 급격한 교회 수의 감소가 2003년 전쟁 발발 후 10년 내에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공과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교회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된 테러 대상이 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라크 땅을 떠났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켜 주지 못하는 조국을 향한 큰 배신감과 상처를 호소한다. 실제로 현지 인권단체 '함무라비 휴먼 라이즈'를 이끄는 윌리엄와다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탈출이 진행돼 2003년 후세인 축출 전 140만 명을 상회하던 기독교인 수는 3분의 2 이상 줄어 현재 50만 명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시리아 교회와 리비아 교회 그리고 이집트 교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교회가 겪었던 전철을 걷게 될 것이다.

#### IV. 우리 생각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1. 이라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순니파와 시아파의 심각한 종파 분쟁으로 인한 총격전과 테러로 인해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실제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시리아 내 이라크 난민이 200만 명에 육박하여 시리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라크에서 죽음을 피해 피난 온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에서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았다. 그래서 이라크 난민들은 요일 별로 좋다고 소문난 예배는 다 참석했다. 매주 두세 개 교회를 돌아다니며, 매일 예배모임에 나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진 이라크인들은 예전에 대부분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 와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라크 난민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는 간절함이 사무쳐 있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셨다.

시리아 교회들은 이라크 난민들로 인하여 이전에 없었던 예배모임에 부흥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던 예배마다 이라크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붐비기 시작했다. 이라크 난민들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도 했다. 이것은 시리아 교회에게 축복이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다. 예배 모임에 제공되는 작은 선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히잡을 쓴 무슬림들이 수십 명씩 교회 모임에 나와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마음에 위로를 받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도 했다. 그동안 무슬림 전도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

던 시리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 2. 시리아와 레바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시리아의 내전이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반군 세력 중에서도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이번 부활절 예배 때에 철문으로 막힌 교회 들에서 소수의 신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혹시 모를 박격포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드럼 등 악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총성이 울려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총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말로 표현 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다.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올해에 시리아 난민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 이집트 등으로 난민이 몰려왔다. 이들 난민 중 1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레바논 교회들이 시리아 난민을 섬기기 시작했다. 음식, 옷 등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이들 난민 무슬림들 중 피난 온 후 예수님이 알게 된 이들로 모임이 시작된 교회도 있다. 사실 레바논 기독교인들은 시리아 무슬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30년 동안 시리아 군대가 레바논에 주둔해서 식민통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시리아 군대가 레바논 사람들 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시리아 군대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심지어

전기줄, 바닥의 타일까지 다 걷어 갔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문과 창문을 부수었다고 한다. 그런 시리아의 무슬림을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일부 교회가 이를 극복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리아 난민들 섬기기 시작했다.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 국경을 넘음으로 당장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비싼 물가와 추운 겨울 날씨로 몸과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헐벗은 이들을 레바논 교회가 마땅히 기업으로 받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들을 통하여, 레바논 교회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 3. 이집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2011년 혁명 이후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득세로 외부적 환경은 힘들어졌지만, 이때에 교회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 이집트 교회 역사상 최초로 콥틱정교회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동굴교회라고 잘 알려진 무까담교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저녁 6시에 시작된 기도회는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철야로 진행되었으며 7만 명이 넘는 성도가 이 곳에서 밤새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때 큰소리로 “예수아(아랍어로 예수님)!”를 외치며 지르던 함성은 10분 이상 지속되며 그 지역 전체를 덮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어느 이집트 교회 집사님께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날이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받는 고난은 아니지만, 사회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 기독교인을 훈련시키시고 계신다. 과거 독재정권의 보호아래에서는 그냥 정치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들이 현지교회 집사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 받고, 고난을 이기는 이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난 4월 11일 리비아 당국에 구금 중인 이집트 기독교인 1명이 현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집트 외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리비아에서 선교 협의를 받고 있던 에자트아탈라가 당뇨와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교도소 수감 중에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에자트아탈라가 선교 때문에 감옥에서 고문으로 숨졌다 고 생각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분당샘물교회 단기선교 팀을 탈레반의 납치하여 두 분이 순교한 이후에, 한국교회 중 많은 교회는 선교활동을 축소하거나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더 선교를 하게 되었다. 이집트교회 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말씀대로 전진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의 수많은 기독인들처럼 그저 신분증에만 자신의 종교를 새기고 사는 이름 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아랍선교를 감당하게 될 이집트 청년 그리스도인들, 애굽의 군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성을 소유한 자로 훈련되고 있다. 이들이 받는 선교훈련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삶으로 체득되고 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2: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국을 떠나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타향살이 가운데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난리 속에서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며 이들은 더욱 단단히 훈련되며,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자신의 믿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4-15)**

## V. 나가며

아랍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 역사의 움직임을 주님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불안하고, 한숨만 짓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살게 된다. 모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아랍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되었다. 과거 자신들을 비호해 주던 세상 정권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이 감당치 못 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이다.

시리아교회는 이라크난민들을 섬기면서, 레바논과 요르단교회들은 다시 시리아난민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있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자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교회들이 결국에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선물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훈련은 아랍의 교회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

비하는 마지막 군대로 준비되는 과정이다. 세상의 어떤 훌륭한 제자양육 프로그램으로도 훈련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루터기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랍의 교회들은 리비아에서 순교했던 이집트 선교사의 영성을 본받아 아랍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무슬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걸었던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아랍의 교회가 보게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 아랍지역의 생명의 대로가 될, 아랍의 심장 요르단을 소개합니다.

김정기형제

월드와이드교회

인터콥간사

요르단의 정식명칭은 요르단하심 왕국이며, 수도는 암만으로 '암몬 자손들의 거대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르단은 북쪽으로 시리아, 북동쪽의 이라크, 동쪽과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 크기와 비슷합니다. 아랍의 중심에 위치한 요르단은, 남북으로 '왕의 대로'라 불리는 길이 길게 뻗어 있어 교통의 요지이지만 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과거로부터 주변국의 침입이 잦아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고 7세기에는 무슬림에게 정복되어 이슬람국가가 되었습니다.

1948년 1차 중동 전쟁 후,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피난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슬림은

한 형제"라며 받아들여 현재 전체인구 650만 명 중 약40%미만이 요르단인이고 나머지60% 이상이 팔레스타인, 이라크, 체첸-체르케스와 더불어 최근 민주화 혁명으로 유혈사태를 피해 넘어 온 시리아 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요르단에 거주하게 된 인구 중 96%는 전통주의 수니파이슬람이며 4%의 크리스천들이 주로 정교회와 로마가톨릭신자로 남아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전체 크리스천 중 약 1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복음주의개신교크리스천입니다.

**아랍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랍의 심장이라** 불리는 요르단은 성경의 주요배경지역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였던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했던 광야가 바로 요르단 전역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남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느보산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2011년 봄,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민주화 혁명은 모든 아랍국가에 혁명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지 만2년이 된 지금, 시리아 난민 140만 여명 중 추정44만5천여 명이 요르단에 유입되었으며 시리아 난민촌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민촌 구호 물품과 기부금에 대한 비리와 폭행, 살인 등의 폭력사건과 알콜, 마약 등의 약물 밀수 등 난민촌 내 치안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여성들은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생계형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촌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난민을 받아들인 요르단사회 전체에도 물가상승, 일자리문제, 주택문제, 생계형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난민들과 요르단 사람들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화 혁명으로 인해 아랍의 모든 사회가 혼들리고 위험해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이전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언급이 사회 전체적으로 금기시되었으나,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재스민 혁명이 후 반정부적인 발언이 자유롭게 진행되며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진리에 갈급해 하는 아랍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단기 선교팀이 만난 가정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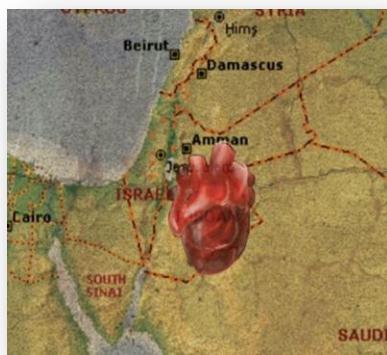
a아주머니는 저희를 처음부터 가족처럼 여기며 우릴 좋아해 주었지만, 복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a아주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한 마디에 하나님은 이 아주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고, 그 기도가 끝난 후 아주머니를 보았을 때,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복음을 한번 더 전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주머니는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아파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인거니?"라고 물었고 "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심장이 찢어질 만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라고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줄 수 있느냐고 하시며 그 분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65%이상이 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국민은 30~35%밖에 안 되는 특이한 나라 요르단은 **아랍의 심장**이고, **생명의 대로**입니다. 많은 주변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전쟁과 생계, 공부

등의 각기 다른 이유로 요르단에 모였지만, 심장에서 죽은 피를 받아들여 살아있는 피를 뿐만 아니라 내는 것처럼 요르단에 모인 모든 이들이 요르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복음 들고 자신의 민족으로 뿐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르단을 관통하고 있는 왕의 대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랍 전역으로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랍이 전쟁과 소문으로 혼잡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당한 자, 갇힌 자들을 요르단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 갇힌 자들을 통해 요르단에 그루터기 같이 남겨 놓으신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일으키고 계십니다.



2011년 시작된 요르단의 비전스쿨 선교훈련을 통해 전도자로 일어난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후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자 깨어 일어나 이들을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구호는 가능하지만 복음 전파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던 요르단의 A교회 목사님은 정작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을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음의 열정을 참지 못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랍의 심장과도 같으며, 마침내 모든 아랍 민족에게로 영원한 생명을 실어 보낼 생명의 대로와 같은 요르단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난민들을 주의 복음으로 살리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생기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랍의 심장 요르단의 부흥이 곧, 아랍의 부흥이 되고, 요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 때 온 아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랍의 심장 요르단이 흘려 보내는 생명으로 온 아랍 국가가 함께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요르단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아랍을 흔드심과 동시에 요르단을 흔드시는 주님, 주께서 요르단 민족을 생명의 대로로 또 모든 아랍에 생기를 공급할 아랍의 심장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르단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요르단이 주의 복음을 흘려 보내는 생명의 대로와 같은 민족이 되게 하셔서 요르단에 모인 모든 이들이 다시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갈 땐,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들고 아랍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2. 한국 교회를 위해 다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 가운데 열방을 향한 마음과 비전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시리아 민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랍의 중심에 위치하여 모든 아랍 민족을 품는 요르단 민족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 한국내 이슬람 선교 전략을 위한 성경적 이해

강다니엘선교사

부천갈보리교회 선교목사

HIS선교회

전 C국 선교사



흔히들 외국의 선교단체에서 한국의 급상승 했던 선교적 사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몇 년 전 만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들의 순위로 2위였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6위입니다. 복음을 받아 들인지 200년도 아직 되지 않은 나라인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은 과연 무엇

으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 중에서 기도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성도들에게 열정 있는 기도와 뜨거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열정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성도들은 부흥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200km나 되는 거리를 짚신을 삼고 양식을 지게에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대단한 열정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의 열정은 새벽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새벽기도에 대한 열정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성도들에게 성령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셔서 한국은 선교강국으로 또 다른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자기들의 것으로 남겨 두고 감추어 두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였고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해외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동안에 **한국에 서서히 모슬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선교적 태도는 필사적이었으며 큰 자본으로 국내 금융시장까지 '이자 없음'이라는 혜택까지 주며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81년 3월13일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첫 주보를 발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글을 쓴 그들의 감동어린 말에 '이젠 1,000호를 내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간 많은 바탕이 한국 땅에 마련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모슬렘은 한국에서 어린이와 연약한 자매들 까지 그들의 선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적 전략은 개신교가 선교지에서 하는 교육적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모슬렘들이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훈계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어린이들 - 이슬람에의 신앙심

우리가 사하바 시대의 어린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슬람 정신은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부모들과 후견인들은 자식들을 너무 응석받이로 키워 아이들의 버릇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슬람 관습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준다면,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를 습관화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어린 이를 보며 "아직 어린애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의 귀여운 자식이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데도 그저 흐뭇해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면 크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씨가 자라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 진정 훌륭한 무슬림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이슬람과 신앙의 씨앗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올바르게 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알라와 무하메드를 위하여 단식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단식과 알라에 대한 기도는 어린 아이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린아이들의 행실을 바로 잡아 주는데 유익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슬람적인 행동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유일한 알라(그들의 하나님)를 섬김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무함마드처럼 절제하며 단식하며 종교인으로서 바른 행실로 잘 살라는 의미입니다.

기타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행을 행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유하고 이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들의 이슬람식 신앙과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는 분명 구별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내세관인 알라(하나님)만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그들의 주장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큰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본토에는 많은 모슬렘들이 생겨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 것도 종교적 평등에 근거하여 제동을 걸기도 하고 모슬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

고 모스크를 지어 종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하면 선행과 봉사 등의 관점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까지 기존 정통교단들과 뒤섞여버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같은 교회로 보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도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표적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입니다. 필자인 저 또한 때론 너무 전도가 되지 않아 '하나님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시면 제가 전도해야 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라고 기도를 해 본 경험도 있을 만큼 표적은 인간들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가난하게 사는 모습도, 예수님을 믿으며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공부를 못하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모슬렘선교사들과의 영적전쟁을

하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루하루 날씨 밖에는 구별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하루나 이틀, 조금 신경 쓰면 한 주일 우리는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 선지자입니다. 그는 능력과 힘이 있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어길 수 있을 만큼 담대한 것이 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하며 자신의 모든 죄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의 주권을 행했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어 요나를 토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지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자아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까닭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방사람들에게 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도 하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슬람 선교는 어쩌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마지막 족속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여기며 그들만의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꾸란은 시대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도 해 가며 한국인들을 모슬렘화 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꾸란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꾸란이 아니라 평등과 화합의 교리를 내세워 가며 한국인들을 모슬렘화 시키려고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와 같이 우리들도 다시 살 수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음전도는 우리 자신을 모든 것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예도 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식도 경제적인 부와 욕심도 복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훌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정 이슬람 선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

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 모슬렘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교전략일 것입니다.

## “A국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

이슬람권이면서 최근 가장 많은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는 A국 김아굴라 선교사님이 현지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자립을 도와 안정된 신앙의 토대를 만들고자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구좌 : \$1,000 (나눠서 소액 후원가능)**

**신한은행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입금시 A국 홍길동”으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양, 염소, 소, 양계 등 기타 1구좌 범위내에서 최소 생계를 위한 자립자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양은 새끼 10마리정도 구입가능, 1년 후에 새끼 낳으면 2년내 3배로 가능, 양계는 계사를 짓고 병아리 100마리 구입 양계가능, 계란을 생산 판매하면 월 300불 수입가능.

**지원조건 :** 믿음의 가정, 공식적인 직업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신실한 가정



## "Missionaries"

# 선교사의 위기

[선교사 중도 탈락의 문제]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해외에서 중도 탈락의 문제는 비단 선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군인, 외교관, 사업가들에 게도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한다. 해외 지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직원 가운데 30% 정도가 도중에 일을 포기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과 가족의 스트레스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내는 쪽이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정서적 고통과 가정의 파탄, 직장에서의 좌절 그리고 질병 등이 찾아 올 수도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들로 중도 하차의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나 개인 그리고

가정은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해외의 일을 맡길 때에는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미리 마련해 둔다고 한다.

한명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키워 낸 선교사가 선교현장에서 탈진 하고 탈락하게 된다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선교에 대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선교사의 위기 때문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탈진 속에서 버티기를 하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채 선교지를 지키고 있

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 중 영적으로 건강해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지금 건강한지, 처음 갔을 때처럼 전도를 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파송된 선교사의 위기를 인식하고 탈진과 탈락을 방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벌써 한국 선교회는 선교사의 탈진문제와 탈락의 문제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고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에 대한 진보를 하지 못하고 선교를 너무 피곤하고 어렵게 여겨, 보내는 선교의 열정까지도 식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선교사의 약함과 퇴보는 열매를 기대하는 후원교회에게는 선교의 당위성과 열정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2000년도에 처음 러시아에 들어 왔을 때 1990년도에 들어온 선배 선교사들 가운데 버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들의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대화가 안 되는 선배선교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모르는 사람과 눈을 쳐다보며 대화하는 것 이 스트레스이고 선교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와는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10년 이상 선교한 선교사들하고만 대화를 나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울증의 초기 증상인 대인 기피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무서워하는 마음, 익숙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해 온 일들을 끌고 가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어 버렸다.

선교지에서 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탈진의 늪에 조금씩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탈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

#### 준비 되지 않은 선교사가 파송을 받을 때

대 기업이 해외 지사를 위해서 직원을 해외 파송 근무를 시킬 때 적합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많은 심사 과정을 둔다고 한다. 그리고 합격된 지원자 부부를 해외 지사로 보내서 한 달 정도 현장을 연구하게 한 뒤, 부부가 결정하도록 해서 중간 탈락을 줄인다고 한다.

선교에 대한 아무런 이해나 준비 없이 담대하게 믿음과 열정만으로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오는 선교사들이 있다. 또는 한국이 싫고 그냥 해외의 삶에 대한 동경으로 오거나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 해외를 도피처로 선택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주위의 모든 선교사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있다.

이제는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심사 기준을 두고 현장 훈련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장기 선교사로 합당하다 인정될 때 파송을 하는 제도적인 보안이 먼저

필요하겠다.

해외에서의 문화 차이에 대한 대비가 없이, 기본적인 현지 적응 능력과 기술을 전혀 습득하지 않고 무작정 용감하게 선교지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특히 은퇴이후 선교를 돋겠다고 들어오는 실버 선교사는 더 큰 문제이다. 언어나 적응이 끝까지 안 되고 작은 일까지도 선배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들어온다. 파송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혼자 타국에서 살아 갈수 있는 적응력과 자생력을 갖추어서 파송해야 한다.

선교지에서의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열정만으로 선교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탈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팀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답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인데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혼자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한국 선교사의 특징이 모두가 다 대장이라는 것이다. 팀 사역에 대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선교 현장의 제도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목사 선교사, 장로 선교사, 집사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대학생 단기 선교사, 선교지에서는 다 똑 같은 선교사이다.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관계에서는 상하의 개념이 없다. 선교사 개인 하나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적지에서 연합하지 못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선교지에 나와서 조직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통제 받는 것을 싫어하고 공동의 사역과 열매가 아

니라 개인의 열매만 가지려고 한다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 독불 장군이 되어 협력하지 않고 팀원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기회도 사역의 힘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선교지의 현실이다. 조직 안에 들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사역하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너무나 많다. 혼자 언어를 배우며 학교 기숙사에 고립되어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고 겨우 생존만 하고 선교사가 태반이다. 그럼 혼자서 무슨 사역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의 직위와 능력에 맞추어서 적지에서의 정확한 포지션을 정해 주고 선교지안에서 조직된 팀 안에서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했을 때

선교사의 탈진과 탈락과 같은 위기의 원인은 선교사에 대한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 후원만 하고 있다. 선교사를 관리할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관리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목회적 목양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늘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한다. 적지에서 혼자 자기 관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관리가 소홀해진다.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이 아무런 통제와 명령 없이 혼자 마음대로 싸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본국과 연락이 끊어지고 물자 지원이 없고 사역의 진보를 확인하기 위한 순방이 없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속에서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아무런 명령과 지원 없이 혼자 싸운다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만약 혼자 산속에서 10년을 보냈다면 군인의 모습이 남아 있을까? 적지에 아무런 관리 없이 혼자 버려진 군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

### 선교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 했을 때

선교지에서는 생존과 사역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끝도 없이 많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역의 진보가 없고 어려움에 발목이 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좌절, 낙심, 자포자기,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서는 전도를 할 때도 쉽지 않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통역을 써야 하지만 성숙하고 준비된 현지 통역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찾고 직접 통역을 가르치고 사역자로 키워내야 한다. 또한 성장한 통역사를 전임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만약 재정이 약하면 키워낸 통역사를 사역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수많은 산을 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린다. 법적인 허가 문제, 예배 처소 문제, 사람을 모으는 문제, 설교하고 가르칠 교재의 번역 문제, 사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과 장애에 부딪힌다. 이러한 장애들을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

획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에 갇혀 불평으로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장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다. 훈련도 없이 조직도 없이 관리와 지원도 없이 산처럼 쌓여 있는 장애물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선교사가 얼마나 될까?

### 극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을 때

선교사의 우울증이나 탈진의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적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갖는 영광스러운 상처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픈데 아픔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치료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병을 그냥 키우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책임지고 매일 매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에는 전문적인 의사에게 찾아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급한 위기가 찾아 왔을 때 부모의 능력으로 아이의 병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만약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약도 없이 급한 위기 상황을 부모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큰 사고가 날수도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이 자주 일어난다. 큰 재난과 같은 엄청난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이러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선교사는 약해지고 넘어진다. 선교사만이 가지는 마음의 병이 많은데 이러한 병을 치료할 병원도 의사도 없다.

아픔을 노출하면 후원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함을 은폐하기도 하고 후원교회에서는 선교사의 이상증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의사를 찾지도 않는다. 아픈 선교사의 치료와 충전보다는 선교사 교체를 먼저 생각해 버린다.

가슴에 가득한 상처와 아픔을 바로바로 치

료하지 않고 아픔과 병을 쌓아 놓았을 때 참으로 위험하다. 선교사가 아플 때 선교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필요하다.

선교사의 탈진과 탈락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선교사의 위기가 한국선교의 위기로 찾아 올 것이다.

## 2013 Mongol Outreach

Universal Care 선교회는 2013년 6월5일~9일의 3박 5일의 기간 동안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라!"(시22:27~28)라는 주제로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 전국 각지에서 19명의 지체들이 모여 몽골의 바가노르, 날라히, 쇼브링 파브릭스 지역을 섬기고 돌아 왔습니다. Universal Care는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여 선교의 운동을 일으켜 진정한 후방선교사로서 살아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본회 고문 황필남 선교사)를 통하여 선교 현장에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또 준비한 사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각 지교회들의 개척을 돋는 사역의 모델은 앞으로 우리 선교회가 지향해 나아갈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 2013 Mongol Outreach

#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시 22:27~28)

김준영

월드와이드교회

아웃리치 서기



6 월 5 일 오후 5 시 30 분. 인천국제공항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19 명의 형제, 자매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속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짐을 부친 후 7 시 55 분 비행기로 인천을 떠나 현지시각 오후 10 시 30 분에 우리는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하면 일차적으로 통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예상대로 짐 하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인솔하시는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지혜롭게 처리해 주셔서 모든 짐을 무사히 버스에 싣고 예배를 드릴 둥힐 오능 교회 (영원한 진리 교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2 시 40 분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1:12 절 말씀으로 먼저 몽골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영혼들을 보고 싶은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 몽골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현지인들과 되도록 가까이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Universal Care 팀이 3 일간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 호텔에 도착해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6월 6일 오전 6시 10분에 호텔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5-39 절 말씀으로 사역 전에 반드시 기도로 성령과 연결되어야 하며 목적을 따라 살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배 후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40분에 호텔을 출발해 11시 40분에 **바가노르**에 있는 '**믿음의 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교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가장 귀한 주님께>로 특송을 한 후 진료팀(이예찬, 이은숙, 흥지혜, 박정은)과 교회학교팀(김경아, 신민자, 김준영, 김병남, 문정배, 이소은, 정세연), 전도팀(신보균, 오동교, 권찬우, 이규의, 이은실)로 나누어 각자 맡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사물놀이팀을 중심으로 전도팀은 3 차례 이상  
마을을 돌며, 전도축제가 있다는 것과  
사영리를 전했습니다. 전도팀이 동원한 지역  
아이들이 120 명 이상 모여 교회학교 사역도  
풍성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학교팀은 페이스페인팅, 풍선 아트,  
비눗방울 놀이, 사탕 나눠주기 등으로  
아이들과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준비한 공연팀의 공연(정세연-바이올린 연주,  
사물놀이팀)과 사영리 도안으로 색칠하기,  
오병이어 퍼즐 맞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면서 전도팀의  
이은실, 오동교 집사님은 먼저 온 아이들에게  
사영리를 전해서 총 18 명의 영접자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자따먹기 게임을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회학교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치과 진료팀과 수지침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Passion of Christ>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믿음의 산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현지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애먹던 치과팀은 3 시 20 분에 진료를 시작하게 되어서 저녁 7 시가 되어서야 진료팀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7 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공연팀의 공연이 있는 후 '다리(Bridge)'라는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황필남 선교사님은 출애굽기 15 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해방을 얻었을 때 모세와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찬양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기쁜 찬양도 불렀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난 후 선교팀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황필남 선교사님은 **마태복음 9 장 35-38 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니시고, 양들의 목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약한 자들에게 강함과 부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첫날 일정을 다 마친 선교팀은 간단히 세면을 한 후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6 월 7 일** 아침 7 시 30 분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9 장 1-6 절** 말씀을 각자 읽고 묵상한 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필남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나누어주시는 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8 시 30 분에 바가노르 믿음의 산 교회를 출발하여 10 시 20 분에 날라히에 도착했습니다. 날라히로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날라히에는 우리의 현금으로 산 공동 우물이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직접 물을 기르러 많이 왔습니다. 전도팀은 우물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영리를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바가노르와는 달리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사물놀이팀이 공연을 하며 전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전도팀들은 우물에서 현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내에서 다른 팀들의 사역을 함께 도우며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진료팀이 교회 본당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학교팀도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은 본당 옆 게르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니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날라히 교회에서는 우리와 3 일 내내 동역한 몽골 현지인 다기가 교회 학교 찬양을 인도해주었고, 쇼브링파브릭스 세상끌 교회의 엉크체첵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 모인 아이들의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사역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마음이 뭉클해지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12 시와 4 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밀가루에 숨겨 놓은 사탕 먹기 등의 게임을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교회학교 사역을  
진행하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사영리  
색칠공부, 최후의  
만찬 퍼즐 맞추기,  
과자 따먹기와



일회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증거한 것처럼 선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 저녁 집회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6~18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 가지 권세.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로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울란바토르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했는데 계속되는 현지식으로 어려움을 겪던 식구들을 위해 한국식당에서 맛있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호텔로 이동해서 몽골 현지 사정으로 온수가 30 분 정도만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씻은 후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 장 26-39 절** 본문으로 빌립이 어떻게 평신도로써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지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빌립이

예배를 드린 후 숙소에서 단잠을 잔 우리들은 다음날 아침 7 시에 일어나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0 장 17-24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행적을 다 기록하시며 삼위로 연합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 이전에 우리가 밟았던 바가노르와 날라히 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쇼브링파브릭스의 세상끌 교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마지막날 사역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끌 교회에 도착하니 트무르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교회학교 사역을 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천막을 칠 나무 뼈대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완성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선교팀들과 힘을 합해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천막도 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소나기가 내려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 날씨가 추웠고, 날씨 탓인지 여러 번 전도를 나갔지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팀은 각자 맡은 진료 사역과 교회 학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틈이 날 때 마다 사영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심 시간 잠깐을 빼고는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치료 봉사한 진료팀과, 짓궂은 날씨에 자신의 옷을 스스로 없이 벗어주며



아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쓴 교회사역팀,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전도했던 전도팀들의 연합에, 비록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 안에 모여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트무르 전도사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걷지 못해서 아버지가 안아서 등하교 시켜주던 여학생이 걷게 된 이야기, 초등학교 3년까지 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자가 된 이야기, 술과 폭력으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혼했다가 주님을 만나 그 가정이 놀랍게 회복된 트무르 전도사님 자신의 이야기까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익을 구하라!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몽골어로 특송하면서 가사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그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 역시 넘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서로 포옹하고 격려하고 사진도 찍으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후에 우리 모두는 교회 옆에 있는 공터에 둘러 모여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는데, 현지교회 성도들이 버스 앞에 모여 한국어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불러봤고, 들었던 익숙한 그 노래가 주는 감동이 어찌나 큰지 버스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큰 사랑을 빛을 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로비에 둘러 앉아 짧게 나마 팀원들끼리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들으니 은혜가 배가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성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2013 Mongol Outreach

#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하여 제가 느낀 마음을 짧게나마 나누기 원합니다. 어렸을 적 중, 고등학교 시절에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던 어린 리빙스턴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두드렸고 저도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단기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선교에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보내주시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였던 선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저의 일부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작년, 유니버설 케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약 4년만의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러시아 사영리를 읽어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문정배

복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컴퓨터 프로그래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통하여 '선교 = 전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몽골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고령지 농업으로 알토란 같은 감자가 생산되는 땅. 징기스칸을 신성시하는 나라. 참으로 변변치 않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몽골에 가지고 계신 마음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도, 어떤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다면 러시아라고 대답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돈과 시간을 드려 다른 나라까지 품는 것은 버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러시아 선교는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떠났지만 그곳에서 몽골에 가자고 하시는 다른 분들의 말에는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저는 몽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2013년이 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조금씩 품게 되었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가 몽골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대감 없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발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몽골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해본 적 없는 어린이 사역을 맡아야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걔다가 회사에서는 믿지 않으시는 선임님께서

'나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선교를 나가냐?' 하시며 장난 반 진담 반 저를 힐난 하셨습니다. 분주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 부담이 가득한 마음으로 많은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처음 황목사님을 뵙고 예배하는데 선교사님의 말씀 첫 시작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첫날 길거리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러 나갔습니다. 사물을 치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 현지인 전도자 분들이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을 겁니다. 저는 무심코 뒤를 보다가 말도



안 통하시는 우리 어린이 사역팀 집사님과 아이들이 마치 '사운드 오브 뮤직'의 포스터 같이 손을 잡고 늘어서 뒤를 따라오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이들 백여명이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운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둘째 날에 우리는 새로운 장소로,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함께 하셨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고자 하여 몽골을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작년에 자기와 약속하였던 그 아이가 내일 가게 될 교회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출발하기 몇 일전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느꼈던 애잔한 감동을 다 전할 수가 없어 못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친구로부터 그 친구도 다음날 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저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도 간증과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어제만큼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낡고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가득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선해서 큰 기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 장소는 협소했지만 30 명되는 아이들이 이곳에도 모였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통하고 어색함에 수줍었지만 마주보는 눈빛에 마음만은 참 행복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 우리는 마지막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서는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천막을 치기 위해 바쁜 어른들을 두고 예배당에 앉아 쓸어지는 마음을 눈물로 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이 교회, 무엇이 이 현신 자들의 마음을 이곳에 두게 하셨는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한 말 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함께 내리는 비. 몽골의 비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천막으로 된 아이들을 위한 교회는 바람조차 다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와 바람, 추위와 싸우며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와 바람으로 인한 추위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천막으로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했으며, 아이들은 비에 젖어 추위로 힘들어 했습니다. 전 그 사랑하시는 교회에 이런 비와 바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내 비, 바람을 다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이 상할까 걱정이 되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조금 전에 물었던 답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따스한 이곳, 예배당. 비와 바람을 막아주며 온기를 품고 있는 이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이라는 비와 바람, 혹독한 추위로부터 품어주시는 교회. 우리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깨어진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되며, 죽음을 선고 받은 믿는 자가 매일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아이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다시 전합니다. 몽골 땅에 내가 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몽골 땅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의 증인이 되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부르셨던 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제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이 몽골, 그 쇼브링 파브릭스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쇼브링 파브릭스 교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당신께서 복음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시며 듣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2013 Mongol Outreach

## 땅의 모든 꽃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시 22:27-28)

이은실

월드와이드교회

3 박 5 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밭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수 1:3)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웃리치를 시작한 몽골땅.

내가 몽골 아웃리치를 다닌 것도 네 번째인 것 같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아웃리치전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매년마다 국악사물놀이로 섬겼지만, 의사는 무리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나로인해 사역에 짐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순종하기로 하고 중보를 부탁했다.

첫날 바가노르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6 개의 교회에서 파송된 19 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같이 섬겼다. 나 또한 안 좋은 몸의 상태를 뒤로 한 채 장구를 매고 이 땅을 보혈로 덮고 선포하며 다녔다. 아픈 몸이었나 싶을 정도로 가쁜하고 힘이 쌈솟고 아팠던 부위는 온대 간대 없었다.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뜰망 뜰망한 눈으로 말씀을 듣는 아이들 하나 둘, 아이들을 잡고 사영리를 전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황필남 선교사님과 함께한 일정과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의 열정과 사랑을 보았다. 춤을 추며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이 몽골 땅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도전이

되었다. 교회에서 장판을 깔고 나눔을 하고 잠을 잤다. 현장체험! 그 자체였다.

날라히 지역에서는 우물사역을 했다. 하루 사용권을 구매해서 종일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물을 나누어 주는 사역이었다. 물을 나누는 동안 또한 사영리를 전하고 영접자에게 축복으로 기도했다. 주님, 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몽골 땅에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간절히 기도했다.

동네를 돌며 사물놀이로 땅을 밟으며, 선포하며 집회와 치료일정을 알리고 강파해지고 무지한 이들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셨다. 우리 주님.

마지막 사역지인 월드와이드교회가 세운 쇼보링 파블릭교회. 바람이 불고 햇빛이 강렬한 날, 교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열악한 환경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 작년보다 좀더 정리된 교회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왔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드리기위해 이곳까지 2~3 시간을 걸어서 온다는 어린 친구들. 아파서 전혀 일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일어나 온전하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생생하게 듣게 하셨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아버지. 작은 순종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머지않아 이곳에도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예배당이 지어질 것이다.

**평신도의 작은 헌신으로 세운 유니버설 케어라는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일들을 기대해본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감사할 뿐이다.....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할건가? 전도!

당신의 묘지명에 무엇이라 적히길  
원하는가?? 선교의 어머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톱 나도누에서 .....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톱 나도누 선교사



작년 7월 건축 부지 매입, 11월이 되어 기초 공사를 끝냈다. 그리고 금년 3월말에 시작된 공사가 11월이 되어, 드디어 지붕 공사까지 마쳤다. 건축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마음 고생, 몸 고생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때 늦은 아쉬움이리라. 러시아에는 '원수가 있

거든 집 짓는 일을 시키라'는 속담이 있다. 절반 정도 밖에 건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러시아 속담이 절절히 마음에 와 닿는다. 그렇지만 건축을 통하여 축적된 유익 또한 작지 않다. 이제 집을 보게 되면 예사롭지 않으며, 덩달아 익숙해진 건축 용어, 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은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먼저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가 그 건물의 견고함과 심지어 모양까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다면 건물을 높이 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며, 또 건물을 짓고 나서도 건물에 금이 갈 가능성 등의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늘 따라 다니게 된다. 건축하고 있는 선교 센터 주변에도 몇 채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팔기 위해 짓는 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본인이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는 집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짓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 아울러 정성을 들이며,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또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짓는다. 그러나 매매를 위한 집은 이윤이 목적이기에 기초부터 부실하며, 짧은 시간 안에 건물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걸 모습을 예쁘게 포장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듣고 행치 않는 자)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며, 그런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마 7:25).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걸 모습만 중시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하기에 알맹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며, 성경은 이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에 비유한다. 건축되고 있는 선교 센터가 모래 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부탁 드린다.



기초가 완전하게 놓이고 나니 벽돌 올라가는 일은 재미 있었다.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층이 완성되고 2층 벽돌 쌓기가 끝이 났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행되던 공사가 지붕 공사 부분에서 지체되었다. 먼저는 지붕 공사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양의 목재를 구입하는 일부터, 목재를 잘 말리는 일, 벌레를 막아 주는 용액을 바르는 일과, 무거운 중량의 H 빔,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와 눈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줄 양철(?) 등 소요되는 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야 했다. 9월 말이면 지붕 공사가 끝날 것이라 예상하며 진행되던 지붕 공사가 11월 초순에야 끝이 났다. 예기치 않은 복병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지붕 공사 책임자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공사가 무려 3주간 지연되었다. 3-4일 후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공사 진행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지붕공사 책임자의 이혼 때문이었다. 자녀 양육비 문제로 전 처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해결하느라 무려 3주가 소요된 것이다. 9월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 지붕이 없는 건물은 비가 내릴

때마다 벽과 내부가 젖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답답함과 함께 쓰라렸다. 지붕만 있다면 비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만 지붕이 없기에 건물은 항상 비에 노출되었고, 내 마음도 그만 내리는 비에 함께 젖어 들어갔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새삼스럽게 지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붕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한다. 건물의 지붕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주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피난처는 없었다. 이세벨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심지어 그녀의 시신조차도 개에 의해 손상되었던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줄 지붕이 있었기에 행복했던 것이다. **건축되고 있는 선교센터가 죄와 심판에 노출되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

# B국 소식

주바울목사

B국선교사



###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한국 사람

저희 주일 예배 모임에는 두어 달 전부터 한국 사람이 한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의 지체인 H가 한국 회사를 다니는데, 그의 직속 상관으로 30대 중반의 미혼인 그가 H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가 신앙보다는 H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문을 열어야 하기에 저희도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 한국 상사는 분명 회사에서 H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H가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H는 당연히 입장에서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었고, 자신과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과 장래를 설계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화 후 H도 점점 그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는 것을 보고 저는 잠시간 낙심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지체들에게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얘기해 왔던 터였습니다. 다만, 이 곳에 아직 믿는 신자들이 많이 없고, 더군다나 믿는 형제는 더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제법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그가 믿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지 말고, 대신 신앙 공동체로 인도한 다음, 그가 믿게 되면 그때는 그와의 결혼 생각을 나누는 것까지는 허락한다고 진작 얘기 했습니다.

그 한국상사가 온 이후로 우리 모임에도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그가 베트남어를 못하기에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H는 현지어로 통역을 합니다. 또 그 동안은 제가 말씀을 차례대로 강해해왔으나, 그 한국 사람을 위해서 너무 깊이 강해하지 않고, 복음 전도 메시지를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H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정도니, 아니면 그와 결혼도 생각하고 있니?" 다행히 H는 관심 정도이지 결혼 생각은 아직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H가 이 땅에서 신실한 현지인 형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 인도자의 기대와 달리 굴곡을 겪는 경우도 많아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신뢰해온 그의 신앙과 성품으로 볼 때 그가 바른 길을 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와 별도로 그 한국 분도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받아 든 베트남어 합격증

제가 이곳에서 생활한지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9월 하순에야 B국어 시험을 처음 치렀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올 때 유학생 비자로 왔었고, B국어를 공부한 다음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당시로는 체류와 관련하여 그 길 외

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분도 그 방식을 추천해주었던 것이지요.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B국어를 배우고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을 때 교수님이 "너는 따로 시험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얘기해줄 테니 그냥 진학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연세가 많으신, 특히 저희 부부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그 교수님은 후에 갑작스런 사고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서 참 마음이 아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 진학은 저에게서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저는 체류를 위한 방법으로 다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진작 B국어 고급과정 자격증을 받았었지만, 사실 저는 비록 실생활에서는 B국어로 살고 또 사역을 해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저의 B국어를 보장해줄 아무런 자격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가을에, 갑자기 시험을 치르고 싶은 생각이 나서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곤 10월 중순에 결과가 나왔다 하여, 가서 합격 증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저에게 좋



B국어를 배웠던 학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은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선교사들이 - 위치적인 문제로 - 몰려서 공부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예전에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곳에 오면 의례히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동네를 방문하니 다시 초기에 왔을 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이제 들어온 사람인 양,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B국어 합격증

## 기도제목

- 신앙 안의 지체들의 결혼문제를 인도하소서. H의 한국 상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 B국 성서유니온선교회 위원회 설립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연결되게 하소서.
- 내년의 사역 계획을 위한 주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7일 B국에서 주영철, 문영미 드립.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선교지에서 III

## 다함이 없는 사랑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집 앞의 넓디 넓은 논(전 이곳을 '홍해 평야'라고 부릅니다)이 품고 있던 벼들을 떠나보내고 혈거 벗은 모양이 안

되어 보였던지 농부들이 논바닥 위를 짚을 펴서 일일히 덮어주며 '그 간 수고 많았다.'하고

'이제 쉬라고..'합니

다. 이제 그들은 6개월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훈련을 받으며...

!

매일의 일상이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 돌아와 주어진 과제를 해야 하는 저희들에겐 매달 쓰는 기도편지의 시작이 듣고 있는 수업과 연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릴락 훈련 중 가장 과제가 많은 과목을 마쳤습니다. 5 주의 과정을 지내면서 '이게

삶이다.' 하며 속으로 중얼거린 적이 많았습니다. 선교지에서 하게 될 일을 종합하여 짧은 시간안에 다 해보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비 현실적인 양의 숙제, 비 효율적으로 보이는 숙제,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하여 작성한 모든 것(아주 작은 것까지도)의 복사본을(컴퓨터 데이터와 종이 데이터 모두 포함하여) 그때그때 만들어야 합니다. 컴퓨터 안의 데이터는 24 시간안에 복사가 되어 있어야 하구요. 장기간에 걸쳐 언어조사, 분석, 사전 작업, 문해 교육, 성경 번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소설 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조심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숙제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평안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예행연습을 하다보면....문득 문득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한숨들...그래서 또 기도실을 향합니다!



!

영어로 하는 아릴락 교육은 단지 교육의 매개체로 된 언어가 영어일 뿐 아니라, 가르

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세부 개념 하나하나를 짚어나가며 결국은 한 층 한 층 쌓아올리는 방식이기에 저같이 '이 과목의 쓰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와 방향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학생들에겐 아주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남편은 저보고 큰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말고 그저 따라가라고만 하지만, 전 도저히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야 하나 하나 배우는 정보와 지식이 날알처럼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의미없는 것들이 되어버려서..혼자서 마음이 바릅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다가 보면 쉬이 지치게 되지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그리고 또 맘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삶이다...인생이 어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더냐? 받아 들여라..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라..!'

그래도 마음 속 한켠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웬지 제가 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느낌이 든다기 보다는 언젠가는 열매 맺고 자라 있을 저를 만나게 될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며칠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치뤄야 할 댓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책 속의 인물들은 기꺼이 그 댓가를 치루려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치뤄내지 못한 지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시간이었지만      댓글을      치루며      애썼다  
생각하렵니다. !

###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어!

함께 공부한지 꽤 시간이 흘러 그런지 저희와 함께 공부하는 6 명의 친구들의 한국어가 제법이나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을 물론 영어로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에게 건네는 한국말은 저를 참 기쁘게 합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피곤해요?” “주무세요”

“배 고파요” “배 불리요”

언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발음이나 톤이 꽤나 정확합니다. 이 곳에 온 친구들은 대부분 3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넜을 친구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엄청난 결정과 희생을 한 친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로 일했던 싱가폴 친구, 가난한 마을에서 석사학위에다 한국에서 또 다른 석사학위를 받는 미얀마 친구, 높은 샐러리로 봉고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심으로 이 곳에서 오게 된 친구들..고맙고 감격이 됩니다. 같이 지낸 시간 때문인지 이젠 서로 너무 정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톡 하고 나올 때가 많네요. 이 친구들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

### 매주 화요일마다 생기는 반찬!

학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고무 장갑을 끼고 아침 설것이를 해야 하는 저 같은 주부에게는 한 끼 뚝딱 할 수 있는 음식이 주어지면 그것 만큼 든든할 때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다니는 교회는 매주 저희에게 반찬을 주십니다. 국이나 찌개, 조림과 무침 이렇게 서너 가지의 반찬을 주시는데 해 놓은 밥과 주신 반찬을 데워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어쩔땐 바다의 도시 포항답게 바다에서 나는 특식(대개)을 선물해 주시기도 합니다. 정과 사랑을 주시는 것이며 저희의 꿈과 사역을 지지하며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메세지인 것 같아 저희에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

### 이불 덮고 나란히 앉아 하는 공부 시간!

제가 바빠서 아이들과의 시간이 잘 보내지 못할 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쓰는 한가지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 하는 엄마, 아빠방에 있는 이불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불 위에서 한 이불을 덮고 각자의 책을 읽거나 블록을 조립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불 위에서 숙제해서 좋고 아이들도 엄마옆에서 그것도 이불 위에서 책 읽고 놀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쩔때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

###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2. 선교지(동 말레이시아)를 내년에 가기 위한 지혜롭게 소통과 필요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3. 온 가족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4. 아이들이 선교지로 가기 전 몸과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하게 준비 될 수 있기를!
5. 파송교회인 서문교회와 동역하는 오산서문교회, 청학중앙교회, 유니버설 케어에 주의 복이 가득하고 왕성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도록\_

### 후원 안내

단체명으로 되어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입니다.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재정 담당자와 통화를 해주세요. !  
외환은행 303-04-00019-349

예금주) 한국 해외 선교회!

재정 담당자 070-8670-6360

홈페이지 <http://gbt.or.kr/>

### 연락처

인터넷 전화 070-8265-7357!

이동전화 (엄) 010-4765-7357

(안) 010-6204-7334!

전자우편 [chonsue@naver.com](mailto:chonsue@naver.com)

[sueahn@naver.com!](mailto:sueahn@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ea.ahn>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 선교사 기도제목

### || 러시아로스톱 나 다누 || 김우섭선교사



1.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내년 여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히 내부 공사 건축비가 제 때 공급되도록
2. 신학교 사역을 위해 - 러시아 남부 지역을 책임질 좋은 지도자들이 양성되도록. 특히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교회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3. 교회 사역을 위해. 특히 크르바노프 바기프 목사님과 좋은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4. 지민이의 학업을 위해



2. 와싱톤에 있는 버지니아 크리스챤 대학교의 몽골 학생들(62 명)의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3. 큰 아들 찬양이가 대학 진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 하도록  
그래서 선교비가 더 들어 가지 않도록
4. 가을이 되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와싱톤 몽골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5. 2014년 1월에 진행될 동 유럽(헝가리, 체코, 스웨덴, 독일, 터키)의 단기 선교 위하여

### || 몽골 ||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http://www.pnhwang.com)

1. 몽골에 세워진 47 개 교회가 몽골인 스스로에 의해 재정 자립을 행하도록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http://www.josephbae.com)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1. 예수생명교회의 청소년들이 몸이 자라 듯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전인격적인 성장이 있기를 위하여
2. 예수생명교회의 건물 지붕이 속히 재건 되기를 위하여
3. 예수생명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교육이 시작 될 수 있기를
4. 2014년 남아공 피이 한인 청소년 예배를 위한 연합 사역을 위하여
5. 제4기 사역을 준비 하는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인도 하심을 위하여
6. 영은이의 헝가리에서의 학업을 위하여
7. 2014년 둘째 지은이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8. 한은경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9.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10.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11.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12.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새로운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2. 러시아어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3. 키르키즈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4. 학생들을 두고 온 가정과 식구들을 위하여
5. 기숙사 생활과 직장 문제와 안전을 위하여

6.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7.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8.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9.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 ||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1.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 해 주셨는데 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2.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3. 두고 온 러시아 연해주 자베트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위해

## || 필리핀 앙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1. 11월 둘째 주 본격적으로 2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이 공부하는 지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2. 2학기 사역을 통해 지체들이 리더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3. 11월 12일 San Agustin MH church 헌당예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4. 얼마 남지 않은 새해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지체들을 세밀하게 돌보도록

## || B 국 주바울 선교사



1. 이곳 B 국 SU (성서 유니온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적절한 교회 지도자들을 주께서 SU 위원회로 인도해 주시도록(3명 정도).

2. 최근 저희 주일예배 모임에 한국 분이 참여합니다. 같은 직장의 B 국 자매가 저희 모임에 참여해서 그에게 마음이 있던 차 모임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3.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사역 계획과 인도를 위해.
4. 한국 인하대 대학원에 유학 중인 '투이' 자매가 12월초에 마지막 논문 심사(석사과정)가 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1. 캄보디아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2. 이 나라, 민족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3. 교회 개척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4. 달란트 상점(중고물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옷과 쌀, 학용품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 ||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1. MK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MK들에게 50%~100% 장학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만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2. 기숙사 및 중. 고등부 제2 캠퍼스가 중미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눈길 버스운행, 교사차량운행 등)없이 추위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1.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MK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그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사감 (돔페어런츠)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원어민 교사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 A국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A 시에 옥담 아저씨의 소천 후에 그 자녀들이 모두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양계로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에 지원받은 아크말 부부에게 지혜와 신실함을 주시도록/ 나머지 두 가정에게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2. 바흐드로 & 막투바 가정에 예쁜 딸 (우마다)을 주셨는데 폐 수술한 곳이 완쾌되고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깨닫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 알리세르와 마디나 가정 (결혼한지 2년이다 되어감)에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들의 위화감과 불신감으로 헤어지라는 강압으로 가정이 깨어 질려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4. 계속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신실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11월의 사역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6. 둘째 인지가 한동 대학에 입학원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7. 최브리스가 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요즘 계속 허약한 체질이 드러나며 최근에 A 도시 생계형 자본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기거하는 중, 그들의 4 살된 자녀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3 겨울호 출간

2013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겨울호(통권 16호) "이슬람 (Islam)"이 출간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mail : [jino0920@hanmail.net](mailto:jino0920@hanmail.net)

### 2. 이스라엘 원두우 선교사 신규 후원

이스라엘에서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계신 원두우 선교사님 가정을 2013년 11월부터 후원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기도의 동역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 3. Universal Care 열방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4. 후원 및 동역안내

신한은행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Universal Care 와 재정적으로 동역하고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5. 선교사 등정

1)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님 가정이 2013년 8월부터 안식년을 받고, 현재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채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 2)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지난 9 월, DMN (Diaspora Mongolian Network)에서 주최한 선교대회 "New Nomad"에 주강사와 특강 강사로 섬기고 가셨습니다. 60 명의 선교 현신자들이 세워 지는 귀한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 3) 신동주 선교사님께서 지난 8 월 한달 일정으로 JDM 선교대회 및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 같이 기도했던 San Agustin MH church 가 건축을 마치고 11 월 12 일 현당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4) 주바울 선교사님께서 자녀분의 입학 문제와 건강 체크를 위해 지난 8 월 잠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 5) 원두우 선교사님께서 ITMC 선교대회 및 한국 일정차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 6. A 국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

이슬람권이면서 최근 가장 많은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는 A 국 김아굴라 선교사님이 현지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자립을 도와 안정된 신앙의 토대를 만들고자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구좌 : \$1,000 (나눠서 소액 후원가능)**

**내 용 :** 양, 염소, 소, 양계 등 기타 1 구좌 범위내에서 최소 생계를 위한 자립자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양은 새끼 10 마리정도 구입가능, 1년 후에 새끼 낳으면 2년내 3배로 가능, 양계는 계사를 짓고 병아리 100 마리

구입 양계가능, 계란을 생산 판매하면 월 300 불 수입가능.

**지원조건 :** 믿음의 가정, 공식적인 직업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신실한 가정

## 7. 제 18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3년 11 월 23 일(토) 오후 5 시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 층 요셉홀

**강사 :** 고세종 선교사(2국)

**찬양인도 :** 와이즈맨워십 선교단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홍성훈, 정경미, 권현주,  
김병광, 박말향, 양태부, 최미영, 신현우,  
홍혜원, 박현식, 최선주, 김세웅, 최두원,  
송성규, 김응권, 정진호, 최혜원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벤엘교회  
부천예음교회, 연세U치과  
장소후원 : 월드와이드교회

### <2013 몽골 아웃리치 후원자>

황영석 윤금희 박인용 김병광 박말향  
제갈승숙 류옥준 신보균 박성규 김원  
김혜영 강순영 강영애 김혜식 이월남  
이은실 정진호 손의선 김옥순 박예은  
박수경

## 기도제목

1.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선교사를 돕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100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5.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6. 2014 년 주실 비전과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훨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2009년 6월 23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10명의 선교사와 2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체,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체체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긍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의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 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Support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출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 제18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외이즈먼 워십 선교단

강사 : 고세중 선교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 20)

## 후원선교사

황꼴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http://www.pnhwang.com)

김무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http://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무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양겔레스), 주네울 선교사 (B국)

엄천영 선교사 (GBT 선교회),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김여굴라선교사 (A국) / 원두무선교사(이스라엘)

디야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트무르, 나랑체책 전도사

몽골 선교신학대학 : 엉크체책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http://www.cyworld.com/universalcare)